

# 국민권익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

정부대표전화 110

ACRC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부패신고 1398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 0102

2010 vol.12



#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 . 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경인년 새해가 밝고 두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해 첫 날 마음에 품었던 소망은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특별한 꿈을 꾸고자 합니다.

좁고 팍팍한 세상,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꿈타령이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꿈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꿈이 없는 시간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인생의 희망 그리고 성공의 가능성에서도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꿈꾸는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할 것입니다.  
꿈을 꾸고, 희망을 품고, 보람을 느끼는  
살 맛 나는 세상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2010.0102 vol.12

## 기획°특집

기획특집  
글로벌 ACRC  
ACRC Inside

04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 무엇이 달라지나  
08 국민권익위원회 세계 속에서 '청렴'을 펼치다  
11 비리에 대한 규제 강화로 우리 사회를 더욱 투명하게

## 희망°공감

다시 찾은 권익  
다시 만난 사람  
만화로 보는 고충처리  
살 맛 나는 세상  
현장에서 찾은 희망  
청렴 에세이  
기자의 취재노트

14 “그때 내밀어준 따뜻한 손 영원히 잊지 못할겁니다”  
16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 손성창 조사관  
18 현장조정해결, 15년간 미준공빌라 사용승인  
20 장애인들의 신바람 나는 세상을 위하여  
23 국민건강 최후의 보루, 식품의약품안전청  
26 「제1회 공직자 청렴에세이 공모전」 최우수상 당선작  
28 임금체불 보도한 MBC 〈시사매거진 2580〉 김혜성 기자의 취재노트

## 행복°누림

희망 인터뷰  
우리가 먼저  
테마가 있는 여행  
생활법률 110  
통째로 보는 책 한 권  
훈훈한 세상  
ACRC News  
편집후기

32 가수 장윤정  
36 군살 빼는 기업문화, 녹색 지구 만든다  
38 매봉 중발골, 뱃길 낭만에 가슴 설레는 오지 계곡 탐험  
42 미소금융으로 활짝 웃고 새롭게 출발하세요  
44 〈그린쇼크〉  
46 국민권익위원회 '1사1촌'·'1과1결연' 봉사활동  
48  
50





## 2010 국민권익위원회, 무엇이 달라지나 투명해서 더 행복한 대한민국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달라진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고위공직자는 물론 부패 취약 분야 일선공무원의 개별 청렴도를 평가해 청렴한 공직풍토를 만든다. 공공부문 계약은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성을 높인다. 행정심판법은 국민의 권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노인과 장애인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강화된다. 올해, 권익위는 국민을 위한 목민관으로 다시 태어나며, 보다 더 따뜻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꾼다. 글·서승범



200년 전, 다산은 청렴과 개혁을 말했다. 나라를 깨끗하게 하고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바랐던 다산. 그는 조선 사회를 유토피아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논했다. 그는 잘못된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법으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야 한다고 역설했고 그 핵심은 목민관의 청렴이었다. ‘나라의 일꾼들을 청렴하게 하고 억울한 백성이 없게 하라.’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 방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 일류국가 진입을 위한 청렴문화 확산

청렴한 공직사회는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권익위가 2010년 화두로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내세우고 권익위가 가진 모든 권한을 총동원하기로 한 이유다. 이를 위해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직자 및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는 예전부터 있던 제도였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의 폭과 깊이를 더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정부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기관에 대해 청렴도를 평가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대상기관을 대폭 늘려가기로 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는 개인별로 평가되기 때문에 당사자는 청렴성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아울러 기관 전체의 투명도를 상승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실제로 지난 2007년부터 철도공사에서 2급 이상의 간부를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하였으며 이런 노력에 힘입어 철도공사의 기관청렴도는 2년 만에 공기업 전체 2위로 상승했다.

공직자의 청렴도 평가는 고위공직자에 머물지 않는다. 인허가 등 부패 취약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예정된 주요 국책 사업들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조기집행 과정에서 부패가 생길 수 있는 여지를 근본적으로 막아 해당 사업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청렴도와 관련된 공직자와 기관에 대한 ‘당근과 채찍’ 역시 강화된다. 부패방지 활동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실적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인사와 성과급에 반영하는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권장했다. 거꾸로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차지한 기관은 인사와 예산에 불이익 조치를 줄 방침이다. 아울러 청렴도 측정결과를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 친서민 현장중심 고충해결

공무원에게 청렴의 잣대가 엄격해진 만큼 서민층의 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도 다양해진다. 권익위는 ‘1일 1현장’이라는 원칙을 세워 하루 한 곳 이상의 현장을 방문하고, 이동신문고 제도를 확대·강화하는 등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의 고충에는 특별대책을 마련해 문턱을 더욱 낮출 예정이다.

올해 권익위는 간부 직원의 현장 확인을 500회 이상으로 늘려 국민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그리고 사전에 찾아내 해결한다. 이동신문고는 20회 42개 지역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삶의 질





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이동신문고는 지난해 28개 지역에서 실시되어 270여 건의 민원접수와 240여 건의 현장합의, 1,000여 건의 상담안내 등 1,500건이 넘는 상담 실적을 거두었다. 지역적으로는 도서와 벽지, 농어촌 등 낙후지역을 위주로 확대해 보다 다양한 국민의 소리를 수렴할 수 있도록 했고, 상담 내용 역시 민원에 대한 상담을 넘어 정책 건의와 같은 의견수렴까지 포함하여 업무 영역의 폭과 깊이를 더했다.

이와 더불어 현장방문 역시 테마를 정해 현장상담의 효과를 배가시킨다.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장애인 단체 등 소외계층의 민원과 택지개발 등 주요 공익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민원에도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오랫동안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나 사회적 이슈, 민관갈등, 특수지역 민생 현장 역시 주요 테마로 정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익위에 중재나 조정을 요청한 지역현안 역시 빠뜨리지 않고 챙길 계획이다. 1월에는 전북 익산시와 김제시, 진안군을, 2월에는 충북 청주시와 괴산군, 진천군을 다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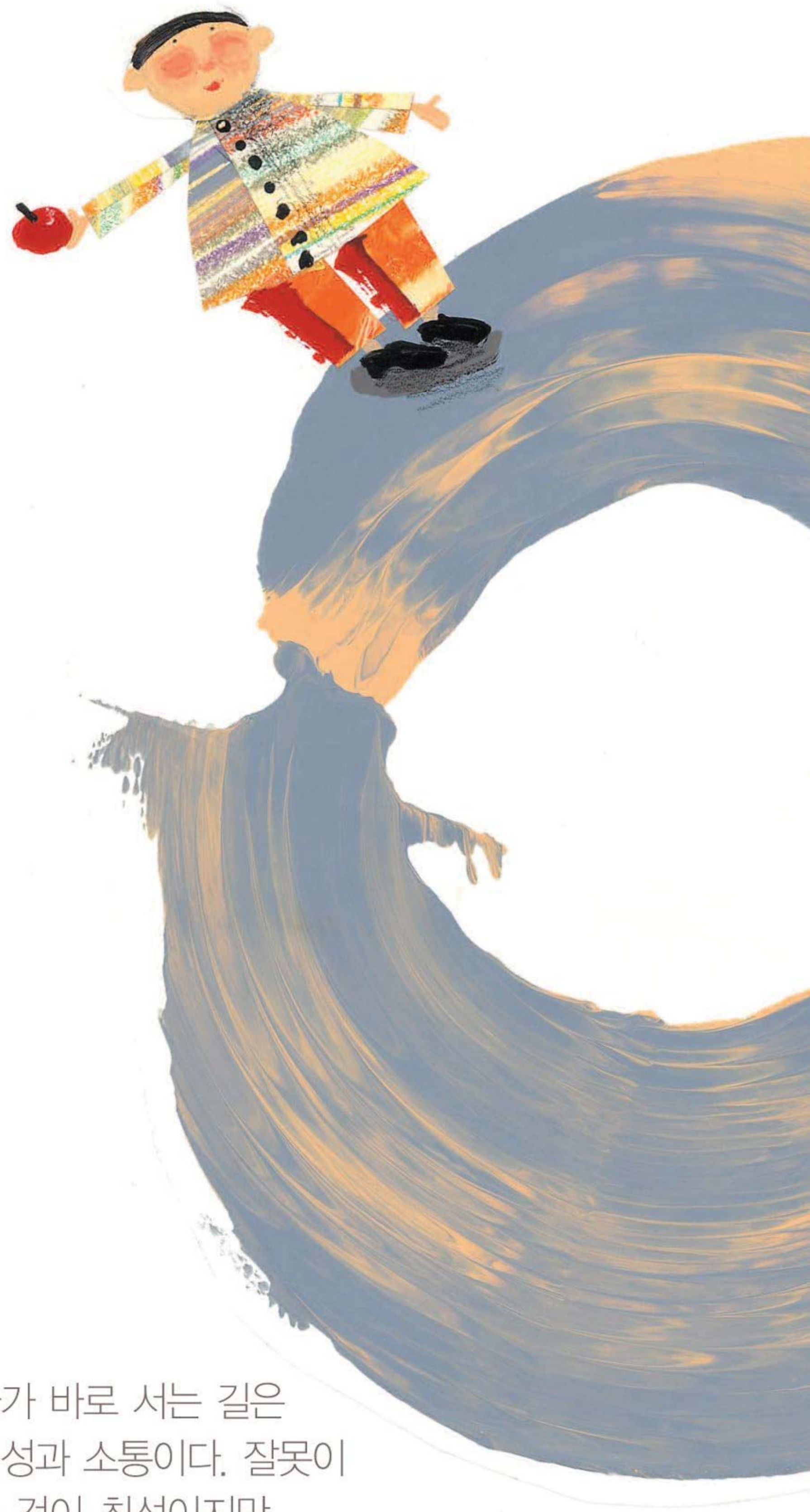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더욱 강화된다. 저소득·빈곤층을 위한 세제 지원 개선안과 영세상공인 애로사항 기획조사 등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연중 실시한다.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외국인 권익보호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안산공단, 의정부 등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장 실태와 복지 수준을 조사하고, 몽골어로 민원을 청구할 수 있는 인터넷 창구를 개설하기로 했다.

인터넷을 통한 민원 서비스도 확대된다. '정책 Q&A'는 정부 각 부처의 주요 정책을 국민신문고에 등록하고,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제도로, 새로운 정책과 바뀐 제도 등을 신속하게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민원 Q&A'는 지난해 9월부터 다음과 네이트에 제공하고 있는데 '민원·정책 Q&A'로 보강되어 네이버 등 민간포털사이트로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작성기관 역시 중앙행정기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다양해진다.

### 미래 성장을 위한 낯은 제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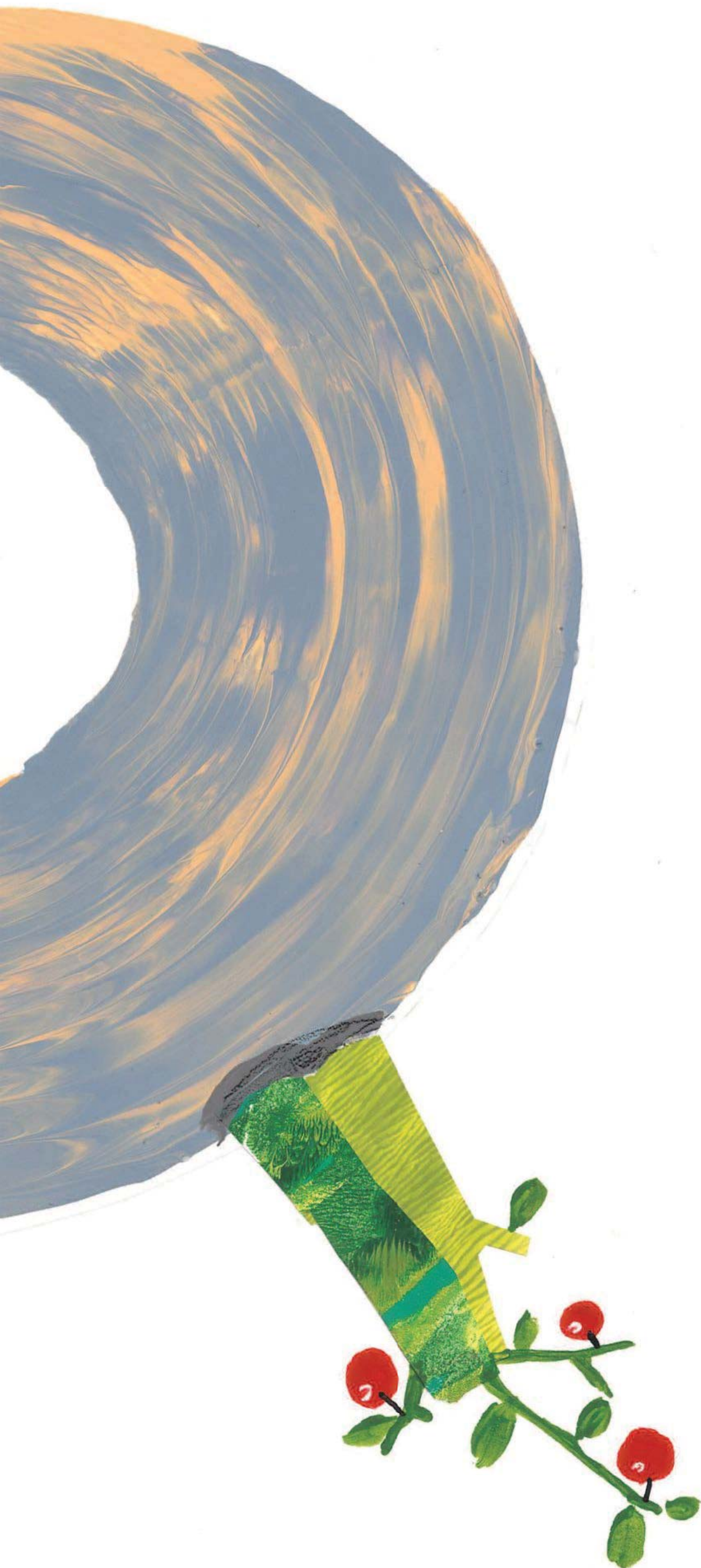
권익위가 청렴과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투명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미래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낯은 제도를 개선하는 것 역시 권익위의 몫이다. 권익위는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주요 제도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선진국 수준으로 다듬는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19위(2009년 세계경제포럼 기준)다. 권익위는 이중 부패관련 지표를 현 40위 이하에서 20위권으로 높인다는 목표로 불합리한 제도를 혁파할 생각이다. 언론의 문제제



나라가 바로 서는 길은 투명성과 소통이다. 잘못이 없는 것이 최선이지만,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보살피는 자세, 국민 위의 조직이 아닌 국민 곁의 도우미로 함께 하겠다는 생각, 국민권익위원회의 목소리 뒤에 숨은 마음이다.





기와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생기는 것을 방지한다. 건설, 공기업, 민간위탁·인증 분야 등을 3대 취약분야로 정해, 집중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장애인과 외국인 근로자,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서민의 행복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재래시장 활성화 등 서민의 생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먹거리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반영하여 '유해식품 제조·유통 행위'를 국제수준에 맞춰 처벌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준도 제시할 예정이다.

### 서민을 배려하는 행정심판

지난 1월 25일, 권익위는 개정된 행정심판법을 공포했다. 새 행정심판법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바꾸고, 청구인의 권익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행정심판법은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심리를 하도록 정했다. 그동안 행정심판의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해 청구인의 부담이 컸다. 서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행정심판사건은 청구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심리하도록 하고, 운전면허, 건축, 식품 등 행정심판이 자주 제기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개선해 사후 문제해결보다 사전 예방에도 치중하도록 했다.

행정심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심판 청구와 진행 경과 조회를 온라인상에서 가능하게 하였다. 청구인은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도 투명하고 신속한 행정구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임시처분제도는 이번 개정안에서 처음 선보이는 제도다.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임시구제제도로 집행정지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부작위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되지 않았는데, 임시처분제도의 도입으로 행정심판 재결 전까지 임시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밖에도 '심판참가 불허가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신설돼 처분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참가 불허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나라가 바로 서면, 국민은 행복하다. 나라가 바로 서는 길은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이다. 잘못이 없는 것이 최선이지만,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보살피는 자세. 국민 위의 조직이 아닌 국민 곁의 도우미로 함께하겠다는 생각. 청렴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권익위의 목소리 뒤에 숨은 마음이다. 🌍





# 국민권익위원회 세계 속에서 ‘청렴’을 펼치다

## 한-태국 반부패 협력 본격화

흔히 21세기 선진국의 새로운 기준은 사회적 청렴도라고 말한다. 과거에는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선진국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었지만 이제는 선진국의 기준이 ‘청렴도’로 바뀌는 추세다. 그만큼 국제적으로 ‘반부패 · 청렴’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우리도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반부패 · 청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러한 사회적 기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도국의 부패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정리 · 편집부

**한** 국과 태국의 반부패기구가 향후 3년간 추진할 협력사업 계획을 협의하기 위한 ‘한-태국 반부패 협력사업 착수회의’와 ‘청렴도측정 워크숍’이 1월 18일부터 5일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한-태국 반부패 협력사업 착수회의’ 개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태국 부패방지위원회(NACC)가 지난 9월 서울에서 체결한 「한-태국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서, 양국 간 반부패 협력이 본격화됨을 의미한다.





1. '청렴도측정 워크숍'이 1월 18일부터 5일간 태국 부패방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2. 팻피 포띠시리 태국 부방위 위원이 워크숍 개최사를 하고 있다. 3. 권익위 전문가들이 태국 부방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도측정 실시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 회의에는 권익위 이연홍 정책기획관과 태국 부방위 솜치 사타푸민 기획국장 등 권익위와 태국 부방위 대표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태국 부방위에서는 기획국장 외에 기획국 및 부패예방국 소속 과장 전원과 정책전략과장 등이 참석하여 권익위와의 협력사업에 대한 높은 열의를 엿볼 수 있었다.

솜치 사타푸민 기획국장은 개최사를 통해 지난 9월 서울에서 개최된 반부패기관장회의(ACA 포럼)에서 반부패 능력배양을 위한 반부패기구 간 상호협력이 강조되었음을 언급하면서, 권익위와 태국 부방위 간 MOU 이행을 통한 교육 훈련, 정보 교환, 우수사례의 공유 등이 양 기관의 발전에 이익이 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이연홍 정책기획관은 작년 9월 권익위가 주최한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과 ACA 포럼의 성공을 위해 태국 부방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현하고, 한-태국 간 반부패 MOU 체결이 반부패 기술협력, 인적자원의 교류, 공동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양 기관의 반부패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태국 부방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측정 도입

이날 권익위가 제안한 '한-태국 반부패 협력사업 계획(2010년~2012년)'을 태국 측이 받아들임으로써 앞으로 권익위는 청렴도측정(2010년), 부패방지시책평가(2011년), 부패영향평가(2012년) 제도를 태국에 전수하게 된다. 양측은 또 태국 반부패 관계기관뿐 아니라 방콕에 지부를 둔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은행, 유엔마약범죄국(UNODC) 등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한-태국 공동 반부패 세미나를 내년 3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권익위와 태국 부방위는 반부패 정책 교류를 위해 상호 방문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국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위해서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5월 경 태국 부방위의 고위공무원단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APEC 반부패·투명성 T/F 회의, ADB/OECD 아·태반부패회의, ACA 포럼, 국제반부패회의(IACC) 등 국제회의에서 한-태국 간 반부패 협력 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관련 국제기구와의 효율적인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MOU 이행 3년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2012년 9월 서울에서 '한-태국 반부패 협력사업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이후 추진할 기타 프로그램의 구체적 시기 등은 추후 실무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태국 부방위는 우리의 청렴도측정 프로그램을 태국에 도입하기 위한 상세한 실행계획들을 발표하였다. 태국 부방위는 청렴도측정 제도 도입을 위해 전담인력을 채용하고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청렴도측정을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 야딘 수파와나킷 국제업무담당관 대리는 “청렴도측정의 평가 체계가 객관성, 신뢰성, 타당성이 높을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전수되어 효용성이 입증되었고, 무엇보다 기관별 청렴도를 공개함으로써 여론을 통한 사회적 제재가 가능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청렴도 개선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부패예방의 효과가 높다”고 평가했다.

‘청렴도측정 워크숍’ 폐회식 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 하고 있다.

### 태국 공무원을 위한 청렴도측정 워크숍 개최

착수회의에 이어 1월 18일부터 5일간 부방위 대회의실에서 ‘청렴도측정 워크숍’ 이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태국 부방위의 요청에 따라 태국 공무원들에게 청렴도측정 제도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부방위 외에 법무부, 공공개발위원회 등 유관기관 소속 직원 20명이 참석하였다.

태국 부방위는 이번 워크숍 기간 중 권익위가 제공한 영문 교육자료를 태국어로 번역하여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오는 3월 부방위 직원 외에 법무부 산하 공직반부패위원회(PACC), 학계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연수단을 한국에 파견하여 청렴도측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할 계획이다. 이어서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4개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시험측정을 실시하여 9월에 분석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태국 부방위는 2012년까지 청렴도측정을 본격 실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태국 부방위는 헌법기관으로 부패·권력남용·부정축재 관련 수사, 공직자 재산심사, 고위공직자 해임 권고 등 강력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제도개선이나 조사평가 등 부패예방 분야 정책은 취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청렴도측정 전담인력을 채용하고, 태스크포스를 설치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의 부패예방 정책 도입에 대한 태국의 기대는 상당히 높다.

권익위는 이같은 기대에 부응하여 한-태국 반부패 협력사업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특히 청렴도측정 등 반부패 제도가 태국에 성공적으로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협력사업을 통해 우리 반부패 정책의 우수성은 물론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 기술지원의 성과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



# 비리에 대한 규제 강화로 우리 사회를 더욱 투명하게

국민권익위원회가 건설산업분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악순환 되는 비리를 근절하고, 비리로 인해 피해를 입는 업체가 없도록 비리기업에 대해 강경책을 마련한 것이다. 권익위가 실태조사와 관련분야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한 주요 제도 개선안을 살펴보자.

글 · 이현주

가장 부패한 분야로 손꼽혔던 건설산업분야가 보다 투명해지게 된다. 건설산업분야는 업계의 자발적인 비리 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벌어지는 과거의 습관 때문에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건설업계의 긴밀한 협력 활동을 통해 부정·부패 근절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12월 권익위와 건설산업분야 민간단체의 업무협약(MOU)은 투명성 향상을 위한 도화선이 되었다. 건설분야의 청렴도를 향상시키자는 취지로 마련된 MOU의 주요내용은 건설산업분야 부패실태 파악 및 원인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건설산업분야 투명성 평가 및 발표, 건설산업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자율적 캠페인 및 홍보활동 등 3가지이다.

여기에 권익위와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은 건설업계 투명성 확대에 더욱 힘을 실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권익위가 마련한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안의 주요 골자는 ‘금품 제공 등 부패 건설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실질화 추진’, ‘뇌물제공 모든 비리기업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실효성 제고’, ‘청렴계약제 위반에 따른 제재의 법제화’이다.

## 뇌물제공 건설업체 영업정지로 비리 악순환 근절

지난해 ○○건설은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수주를 위해 임·직원을 총동원하여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로비 활동을 벌였다. 로비는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으로 이루어졌으며, 로비 과정에서 수주 영업활동은 회사 임원의 고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과 학연, 지연관계에 있는 일반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을 암시하며 평가위원 로비에 가담하게 했다. 평가위원 양심선언으로 로비 사실이 적발되었지만 건설업체는 ‘영업정지’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해당업체에서 로비 활동을 개인 비리로 치부하였고, 업체 임·직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평가위원이 ‘발주자 사용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발주자 사용인’이란 발주자와 정식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 또는 업무





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의 통제·감독 하에 있는 자를 말한다. 또한 기타종업원, 즉 임원이 아닌 직원이 제공한 뇌물에 대해서는 법인의 선임·감독상 주의의무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무혐의' 처리되었다.

이렇듯 기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끊임없는 부정한 청탁행위에도 처벌을 받은 대형 건설업체는 전무한 형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설업체 임·직원들이 턴키심의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 건설업체에 '영업정지'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발주자 사용인, 기타종업원 등의 재물 취득·제공 대상이 구체화 되어 처벌 규정이 보다 촘촘해진다.

### 입찰담합, 뇌물 비리기업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 강화

입찰담합 건설업체, 뇌물제공 비리기업에 대한 제재도 더욱 강화된다. 현재 건설분야 공공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부정당업자 제재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이나, 체결한 계약의 이행 등에 있어서 불성실한 자에 대해 국가가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입찰담합 행위에 가담하여 적발된 건설업체들의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가 이루어져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정위에서 입찰담합 조사결과 과징금 부과 결정된 경우 조달청 등은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 공공기관 입찰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뇌물을 제공한 비리기업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자 제재 규정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한전, 조폐공사, 관광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LH공사 등 14개 공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공기업, 지방공기업에서 업체가 입찰비리를 저지를 경우 해당기관에만 입찰 참여 제한을 받아 부정당업자 제재 실효성이 미흡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권익위에서는 공사, 용역, 구매 등 공공계약과 관련해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어느 한 기관에서라도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전 공공기관 입찰참여 금지'가 적용되도록 관련부처에 권고하였다.

### 청렴계약제로 더 깨끗하게, 더 맑게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입찰부터 계약이행 전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렴계약제가 시행되고 있다. 청렴계약제란 국제투명성기구(TI)가 고안한 제도로 공공기관의 공사발주 또는 물품·용역 계약시 공무원과 민간업자가 뇌물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계약 취소, 입찰자격 박탈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청렴계약제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적용하는 회계 예규 또는 입찰유의서 등으로만 돼 있어 위반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제재조치의 법적 효력이 없어 공공기관 청렴계약 위반 사실이 드러나도 계약 해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철도시설공단도 모 건설사를 상대로 청렴계약제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있는데, 해당 건설사가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회계 예규는 대외적 법적근거가 없다'며 계약 해지에 대해 무효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나라장터에 게재 된 3,624건의 계약 중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따낸 것이 밝혀지고도 실제 계약해지로 이어지는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다.

국회에서도 이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운영해온 청렴계약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고 국회-정부 간 긴밀한 협조 속에 만든 법안이어서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청렴계약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렴계약제가 강화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입찰·낙찰·계약의 체결과 이행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으로 청렴계약을 위반한 자는 계약이 해지 된다. 계약이행 중이라도 해지가 가능하게 된다. 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할 때 계약이행 성실도 항목에 청렴계약 준수정도가 포함되고 청렴계약 위반업체 명단이 나라장터에 공개된다. 🌍



사회 곳곳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국민권익위원회

# 희/망/공/감

|             |    |                                        |
|-------------|----|----------------------------------------|
| 다시 찾은 권익    | 14 | “그때 내밀어준 따뜻한 손 영원히 잊지 못하겠습니다”          |
| 다시 만난 사람    | 16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 손성창 조사관                |
| 만화로 보는 고충처리 | 18 | 현장조정해결, 15년간 미준공빌라 사용승인                |
| 살 맛 나는 세상   | 20 | 장애인들의 신바람 나는 세상을 위하여                   |
| 현장에서 찾은 희망  | 23 | 국민건강 최후의 보루, 식품의약품안전청                  |
| 청렴 에세이      | 26 | 「제1회 공직자 청렴에세이 공모전」 최우수상 당선작           |
| 기자의 취재노트    | 28 | 임금체불 보도한 MBC 〈시사매거진 2580〉 김혜성 기자의 취재노트 |





# “그때 내밀어준 따뜻한 손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손성창 조사관님께

글 · 강태욱

2009년은 제게 희망과 기쁨의 한 해였습니다. 희망의 도화선이 되어 준 국민권익위원회, 손성창 조사관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몇 자 적어봅니다.

감사의 이유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구차하지만 제가 살아온 삶을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결혼 8년 만에 간절히 원하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유산 끝에 얻은 아이라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이는 선천성담도폐쇄증이라는 희귀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친 데 덮쳐 무역업을 하던 저는 사업을 도중에 접게 되었고 사업으로 인한 빚, 아이 치료비 등으로 완전히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소득 한 톨 없고 모든 통장과 집은 압류돼 라면 한 끼조차 때울 형편이 안됐습니다. 여기에 은행과 카드사에서 매일같이 걸려오는 빚 독촉 전화... 생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절망 끝에 내몰린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목숨을 끊고자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운명처럼 연결된 선배와 전화 한 통화로 선배 아버님이 운영하시던 꽃 농장에서 2008년 4월부터 처자식을 데리고 들어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딱지로 얼룩진 집에서 나올 수 있어 기뻐고, 무엇보다 처음 해보는 일이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어 빚을 갚기 시작하자 은행과 카드사들의 빚 독촉이 더 심해졌고, 대환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빚과 이자는 더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신용회복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상담 후 2008년 11월부터 신용회복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모든 은행과 카드사로부터의 빚 독촉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은행과 카드사로부터 아무런 전화가 오지 않는 그야말로 천국 같은 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장님 내외분께서도 저희 부부에게 20년 넘도록 운영하던 꽃 농장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대로 물려주셨습니다. 가게 안에 방도 2칸이나 있어 주거 걱정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자식도 아닌 저희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사업체를 물려주시는지... 저희로서는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꼭 자기들보다 더 성공해달라고, 꼭 일어서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재기하리라 다짐하며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런데 꽃집 일은 주로 배달 일이라 화물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승용차도 폐차를 하였던 터라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준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주위의 친구, 친척, 지인 등 그동안 조금씩이라도 도움을 다 받아서 더 이상 말을 할 곳도 없었고, 비용이 많이 들어 빌릴 곳도 없었습



니다. 주문은 들어오는데 용달차로 물건을 배송하니 이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현상유지도 못하는 꼴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절박한 심정에 국민신문고에 제가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을 돌려달라고, 그래서 차를 사서 장사를 하여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생떼 같은 민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국민연금 창원지사에서 돌아온 형식적인 답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서러웠습니다. ‘안정된 직업으로 꼬박꼬박 월급 걱정 없이 사는 당신들은 우리 같은 사람이 왜 이런 민원을 넣는지 알기는 아냐’고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가족을 다시 살려야 하는 저로서는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 다시 일어설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백방으로 알아보아도 아무런 해결책이 없어, 두 달 후 쯤 다시 국무총리실에도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해결은 안 되더라도 제 심정을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민원을 낸 후 답변과 함께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권익위 손성창 조사관이라고 하면서, 연금의 제도, 취지, 형평성, 그리고 민원을 직접 해결해 줄 수 없는 이유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 정도의 대답은 민원을 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감동시킨 것은 제 어려움을 큰형님처럼 들어주시고 공감 해 준 것이었습니다. 자기 일만 사무적으로 처리하고 해결됐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일부러 전화해서 제 답답한 마음을 보듬어 안아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다른 대안까지 직접 찾아보고 제시 해 주셨습니다. 신용 없고 어려운 사람이 자활하도록 도와주는 사회복지은행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그곳에 지원하여 한번 도전해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희망을 잃지 말라고, 어려우면 늘 전화해서 상담하라고 하시더군요.

창원에 있는 사회복지은행의 대출 공고를 기다려 서류 접수를 하게 되었고, 실사와 면접 등을 거쳐, 마침내 지난해 7월 창업자금을 대출받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은 후 제일 먼저 중고 봉고차를 샀고, 너무나 감사하여 손 조사관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후로도 가끔 전화를 주십니다. 잘 살고 있냐고, 잘 되고 있냐고, 어려운 점은 없냐고. 친구도 친척도, 주위사람도 어려운 사람은 피하는 것을 절감하고 느끼고 있는데, 저희 같은 사람에게 격려의 전화 한 통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이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 세상에 이런 공무원도 있었구나, 권익위가 형식적인 곳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도와주는 곳이구나!’ 단순한 서류상의 대답이 아니라 민원인의 고통에 귀 기울여 주고, 해결 방법을 찾아서 도와주고자 하는 그 마음과 행동에 감명 받았습니다.

이 편지를 빌어 손성창 조사관님 그리고 모든 권익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강태욱 올림





# 민원인의 고충 해결, ‘경청’ 과 ‘공감’ 이 우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 손성창 조사관

경청과 공감. 손성창 조사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꼭 갖춰야 할 덕목으로 이 두 가지를 꼽는다. ‘경청’은 민원인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기 위함이고, ‘공감’은 내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여 해결책을 찾기 위함이다. 경청과 공감을 마음에 새기고, 고충 해결을 위해 방방곡곡 발로 뛰는 손성창 조사관을 만나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들었다. 글·이현주 사진·조항진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분의 오랜 벗이자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더 뛰어난 조사관들이 경청과 공감을 통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만’**이 힘드셨죠”, “제가 꼭 알아봐드리겠습니다.” 손성창 조사관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진심이 느껴진다.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에서 조사관으로 근무하며 ‘민원인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자’는 원칙을 고수한 덕분에 어떤 상황에서도 민원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습관이 몸에 배었기 때문이란다.

“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이곳이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오십니다. 여기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겪으셨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요. 그래서 고충 해결 이전에 마음을 이해하고 나누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

손성창 조사관은 권익위에 파견근무 중이다. 본래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그간 인사과, 의료정책과, 질병관리본부 총무과 등 다양한 보직을 거쳐 2008년 5월부터 권익위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지금까지 그가 처리한 민원만 해도 700여 건. 뛰어난 해결사로서 수많은 민원을 처리했지만 강태욱 씨의 사연은 손에 꼽을 만큼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스스로 지옥이라고 말할 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니 친형 같은 마음으로 돕고 싶었습니다. 죽을 결심까지 했다고 말할 땐 너무 마음이 아팠죠. 어떻게든 살 방도를 마련해주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던 중 당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희망기움뱅크처럼 창원에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로 창업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사회복지은행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곳의 도움으로 재기의 발판이 마련돼서 기뻐합니다. 지금도 가끔 연락하는데 많이 밝아진 목소

리에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었습니다.”

이처럼 그에게 배정된 민원인과 민원내용, 해결책을 모두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각각의 민원 해결에 쏟는 열정이 남다르다. 생활이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달라던 민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줄여달라던 1급 장애인의 민원, 교도소 재소자의 민원까지 손성창 조사관이 들려주는 다양한 에피소드 속에 그의 열정과 애정의 증거가 고스란히 나타난다. 또한 민원이 해결된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되면 추후 발생하는 상황들에 대해 확인하고 점검하는 모습은 민원인들에게 감동까지 전달해준다.

“무엇보다 ‘경청’과 ‘공감’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하겠죠. 말하는 사람의 의도, 감정, 배경까지 이해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경청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해결책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해결책이 없어도 민원인의 답답한 마음이 느껴져 대안책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기게 됩니다.”

손성창 조사관은 올 5월이면 2년의 파견 임기를 마치고 다시 보건복지부로 복귀한다. 어떤 부서에서 근무할지 모르지만 권익위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고, 국민보건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부서에서 일하고 싶다는 소망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분의 오랜 벗이자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더 뛰어난 조사관들이 경청과 공감을 통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드릴 겁니다.”라며 또 다른 민원인의 고충을 듣기위해 수화기를 들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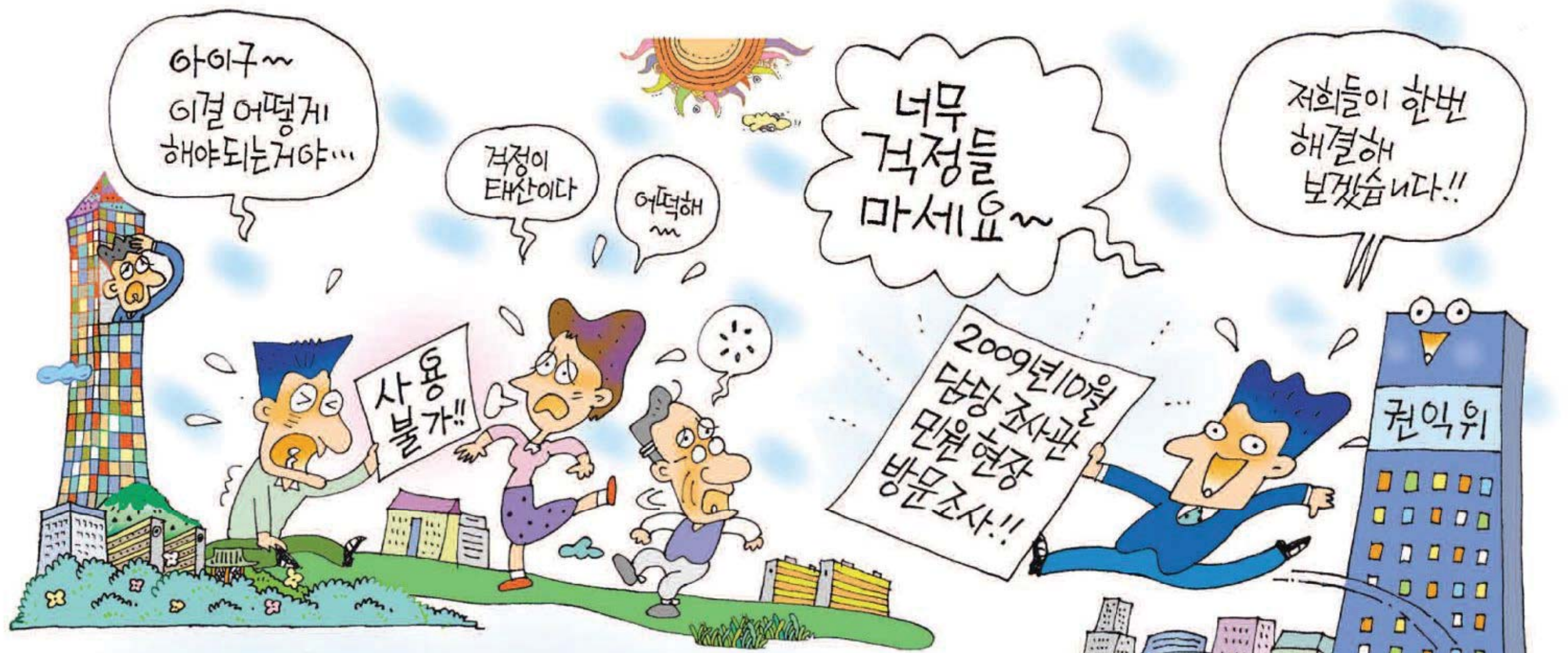


# 현장조정해결 '15년간 미준공 빌라 사용승인'

-부산 남산동 빌라 19세대 사용승인토록 합의-









# 장애인들의 신바람 나는 세상을 위하여

대한민국에는 이백만 명의 장애인들이 산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이 진학과 취업에서 차별받고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세상 속에서 좌절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자유롭게 이동하고 소통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백만 장애인들이 모두 살 맛 나는 세상이라고 외칠 때까지 권익위의 관심과 노력은 2010년에도 계속 될 것이다.

글 · 정소영 일러스트 · 장인석

**국** 민권익위원회는 현재 국민의 고충처리와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권익위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위해 '09년 4/4분기에 장애인 고용, 이동편의, 휴양시설 도입, 장학금 제도 등 네가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한편 청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권익위 110 콜센터에서는 수화상담서비스도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 일하는 즐거움을 함께 나눕니다!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강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일정 수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지정한 의무고용률은 상시 근로자의 2% 이상이다. 하지만 2009년 노동부 조사결과를 보면 공공기관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3%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그 효과가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몇 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먼저 각급 행정기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할 때 '장애인 고용률' 지표를 마련하여 반영하도록 했다. 타 정부시책과 동등하게 평가 배점(0.2점 → 0.3~0.4점)을 부여하여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또한 권익위는 평가 우수기관에는 기관장 평가 시 가점 부여, 포상, 정부출연금을 편성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기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의 의무고용률을 기존의 2%에서 3%로 공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개선방안도 추진하여 향후 장애인들의 고용이 활성화 되도록 하였다.

### 원하는 곳 어디든 편하게 가세요!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장애인복지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들은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관련 시설이 부족해 이에 외출을 포기하거나 외출을 하더라도 길 위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권익위는 장애인을 포함한 약 1천 2백만 명의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보행환경, 여객시설 등에 대한 다양한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

개선안에는 지자체 특별교통수단(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장착 콜택시 등)의 법정 보유대수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벽지노선에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을 상호 보완해 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육교 등에 설치하는 경사로의 최소 곡선반경과 보도 턱 높이 기준이 마련되고,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안내간판에 리프트나 엘리베이터의 위치 안내판 설치도 추진된다.

또한 권익위는 중증장애인들의 편리한 열차 이용을 위해 내년 부터 동대구→울산(부전)간 무궁화호 열차노선에 장애인 승강설비가 갖춰진 개조동차를 증편하기로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하였다. 새로 도입되는 열차에도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승강설비가 갖추어지고, 농아인의 열차 이용편의를 위해 역무원들에 대한 수화교육도 실시된다.

### 지자체 자연 휴양림이 달라집니다! 중증 장애인 휴양시설 도입 추진

지난 2007년 '장애인 문화 활동 실태 및 욕구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여가 활동 대부분이 집에서 쉬거나 TV 시청과 같은





제한적인 실내 활동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휴양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권익위는 장애인들의 여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16개 시도에 장애인 휴양시설 도입을 추진하고, 산림청 자연휴양림의 장애인 객실제를 지자체 자연휴양림에도 확대 도입할 것을 권고 하였다.

이는 지자체가 토지를 제공하고, 정부가 건축비를 지원하는 매칭 펀드 방식을 활용한 것인데 우선 1~2개 지자체에 장애인 휴양시설을 시범운영하고, 향후 지자체와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 하여 연차적으로 16개 시도별에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객실제를 도입 하도록 하는 개선안도 추진된다.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접근로, 숙박시설 등의 편의시설 설치와 장애인객실의 우선 예약시스템 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 돈 걱정 없이 공부하세요! 대학 장애학생 장학금 제도 개선

2009년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은 3,800여 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0.1% 수준에 해당한다. 하지만 장애인 가구의 소득은 비장애 가구의 절반수준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도 6배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사실은 교육현장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학생에 대한 배려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다. 권익위가 지난해 9월 실시한 '대학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대학 중 56.1%가 장애학생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일반 장학금에 비해 시행률이 저조했으며, 대학

별로도 장애학생의 장학금 수혜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장애학생 장학금 제도를 신설하거나 기존 장학금제도를 정비하고, 장애학생 도우미 장학금 확대 및 인력풀 관리의 체계화를 권고하였다. 또 국가 장학금 중 일부를 일정 소득범위 내의 저소득 장애학생에게 지급하거나, 기초생활수급 장학금·우수 장학금의 선발 조건을 장애학생에게는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 세상과의 소통을 도와드립니다! 110콜센터 수화상담 개시

권익위의 110콜센터는 정부 민원을 전화로 안내·상담해주는 소통의 장이 되어왔다. 110콜센터는 2007년 5월 개통 이래 380여만 콜, 하루 평균 6,000여 건의 전화를 통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궁금증이나 불편함을 해소해주고 있다.

110콜센터는 그동안 이용이 힘들었던 청각·언어장애인들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수화상담서비스를 시작했다. 음성으로 전화상담을 주고받는 110콜센터 서비스가 '씨토크 인터넷 영상전화서비스'를 통해 수화로도 상담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110콜센터 수화상담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국번 없이 110번으로 전화하면 곧바로 수화상담사와 통화할 수 있다. 110콜센터 홈페이지([www.110.go.kr](http://www.110.go.kr))를 통해 원하는 시간에 상담예약을 하면 해당 시간에 수화상담사가 이용자에게 전화를 주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앞으로 수화상담서비스를 좀 더 발전시켜 모바일 수화상담서비스, 인터넷 상담서비스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청렴도 일등 기관으로 진입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환하게 웃는 식약청 직원들.

## 국민건강 최후의 보루, 식품의약품안전청 투명하고 청렴한 **국민의 기관**으로 다가서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청렴도 순위가 10단계 이상 꺾충 뛰어오른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괄목할만한 약진이 단연 눈에 들어온다. 최하위 성적표를 받아든 참담한 심정을 일 년 후 비약적인 발전으로 되갚은 식약청은 지난해를 기폭제로 삼아, 올해는 일등 기관으로 진입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투명하고 청렴한 식약청을 구현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목표와 과제, 그리고 2010년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이용규 사진·조향진



**식**품에 있어 안전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국민의 보건을 최  
종적으로 책임지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거는 기대와 요구도 많이 높  
아지고 있다. 안전을 담보로 하는 기관으로서 식품 허가 기준에  
대한 엄중한 잣대를 대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허가를 받는 입장  
에서는 까다로운 규제들이 불필요하게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을  
할 수 밖에 없을 터. 그런 까닭에 식약청은 그간 악역 아닌 악역을  
담당하며 많은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아온 것이 사실이다.

“2008년도에 멜라민 사건이 터지고, 연달아 석면탈크 의약품  
파동과 신종인플루엔자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식약청은 그야말  
로 다사다난한 2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2년의 기간은 국  
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 노력한 소중  
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전 위해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백신 자주  
권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 안전기준을 선진  
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국민 건강 보호에 크게 기여한 것을 보람으  
로 생각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식약청이 가장 먼저 추진한 개선사항은  
‘우리부터 바뀌자’는 의식변화였다. 투명, 청렴 식약청 구현을 위  
한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도 그 이유로부터 출발한다.

### 투명하고 청렴한 Clean 식약청

“청렴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  
다. 단순히 금품, 향응과 부패 환경을 떠올리는 의미의 청렴이 아  
닌 친절, 청렴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규제개혁을 통해 조직의  
업무 문화를 바꾸어나가는 것이 결국 총체적 의미의 청렴이라 판  
단했고, 이에 맞추어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청렴한 Clean 식약청’이라는 비전이 탄생하  
게 되었고, 청렴도 우수기관 달성, 부패·비위 발생 제로, 친절·  
청렴문화 정착을 3대 목표로 삼았다.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인·  
허가, 감시·단속·검사 등 규제 업무가 많은 업무 특성을 감안하  
여 규제 행정을 투명하게 하였고, 친절·청렴도 교육을 통해 직원  
들의 의식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불필요한 전봇대를 없애는 작업을 했듯  
이, 우리 식약청에서도 국민의 불필요한 발목을 잡는 ‘전봇대’ 들  
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달라진 식약청의 모습에 오  
히려 ‘그래도 되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최선을 다해보자는 생각이 청장님 이하 1400  
여 명 직원 모두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무릇 변화의 바람은 위 아래로 고르게 불어줄 때 진정 제 역할  
을 수행하는 법,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들의 활약은  
결국 2년 연속 규제개혁 우수기관, 청렴도 급상승 기관으로 자리  
매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 비약적인 발전은 스스로의 변화로부터

지난 2008년에 조사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순위에서 최  
하위의 수모를 겪어야했던 식약청은 지난 2년을 와신상담의 시간  
으로 삼아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아무리 잘 해도 본전’ 일 수  
밖에 없는 업무 특성상, 우수기관으로의 진입이 요원해 보였던 것  
도 사실일 터이다.

“꼴찌에서 11단계 상승한 셈이니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오  
히려 꼴찌여서 더 열심히 해보자는 각오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처  
음부터 우등생이었다면 밤새워 공부해 이루어 낸 성적 향상의 기  
쁨을 맛볼 수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상승폭을 기록할 수 있었던 데  
에는 청장님의 강한 의지와 우리 스스로 변화해야한다는 생각이  
서로 잘 부합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식약청 감사담당관실 홍순욱 부이사관은 “감시·단속 분야의  
민원 체감도 등이 낮아 반부패 정책의 방향설정이 시급한 상황이  
었다”고 당시를 회상한다. 그런 까닭에 자체적으로 청렴활동 부서  
평가제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성과 평가와 연결시키고 우수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투명하고  
청렴한 Clean 식약청’을  
비전으로 삼고 자체적으로  
청렴도 부서평가제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성과 평가와  
연결시키고 우수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피드백  
시스템을 계속 이어갔다. 또한  
청렴도가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컨설팅을 통해 청렴 부분에  
있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1. 식약청 내부 보고 자리에서 발표하는 윤여표 청장의 모습. 2. 청렴대책보고회의에 윤여표 청장 이하 30여 명이 참석해 식약청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뜻을 모았다. 3. 식약청 감사담당관실 홍순욱 부이사관은 식약청의 비약적 발전은 우리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지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한다.



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피드백 시스템을 계속 이어나갔다. 또한 청  
렴도가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  
컨설팅에도 귀를 기울였다.

“청렴컨설팅을 받기 전에는 청렴이 무엇인지 모르는 내부 직원  
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컨설팅을 통해 청렴도가 중요하다는 것  
을 모두가 공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소속 기관 차원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스템 인프라 구축 또한 성과라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 식약청에서는 청렴의지가 담긴 윤여표 청장 명의의  
서한을 발송한 바 있는데, ‘이런 내용의 편지를 받아본 것이 식약  
청이 처음이다’는 감사 편지도 있었고 ‘식약청에 정말 말하고 싶  
은 것을 이야기해도 되냐’고 되묻는 등 흥미로운 반응이 돌아왔다.  
달라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차원에서 직원들이 느끼는 자  
부심과 보람은 당연한 수순이기도 할 터이다.

현재 사업 부서에 산재해 있는 현안과제들도 많은 터라, 자칫  
방심하다가는 2년 전 참담했던 최하위 성적표를 받을 수도 있는  
일. 식약청은 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청렴추진기획단’을 운영하여

청렴 대책 추진 방향을 조정하고 분기별 추진실적을 점검할 계획  
이다. 더불어 소속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청렴추진실무반’이 기획  
단 결정사항을 시행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작년보다 더 노  
력하는 자세로 부족한 것을 돌아보며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다.

### 최고 청렴도를 자랑하는 일등 기관으로의 진입을 꿈꾸며

과거 불친절하고 권위적인 기관에서 국민에게 다가서는 청  
렴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는 식약청의 목표는 기관 최고의 청렴도  
일등 기관으로의 진입.

“11단계 상승은 앞을 바라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기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전 직원이 노력  
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생각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의욕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직문화를 청렴하게 하  
고, 규제행정을 투명하게 하며 민원인을 편안하게 하는 가운데 엄  
정한 공직기강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식약청. 올 한해가 명실상부한  
일등 기관으로 자리매김해나가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



입 사 후 6년간의 직원시절을 보내고 과장으로서는 낯선 도시에 가게 되었다. 낯선 업무, 낯선 사람, 모든 것이 어려웠지만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초임간부라는 부담감이었다. 그래도 열심히 업무를 익히고 분위기에 젖어들려고 노력하던 그 해 추석에 내 심장을 쿵닥거리게 하는 일이 생겼다.

우리 회사 업무를 위탁받던 업체의 부장이 나를 휴게실로 부르더니 “명절도 되고 했는데 변변치 않네요. 정성으로 생각하세요” 라면서 봉투를 하나 내놓았다. 순간적으로 ‘나도 이젠 간부니까 윗분들도 신경 쓰고 직원들도 챙기는 게 맞지’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초임과장이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에 정중히 거절을 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같이 근무하던 열 살쯤 많은 직원이 내게 오더니 “김 부장이 뭐 안 주고 가던가요?” 라고 묻는 게 아닌가. 갑자기 낮이 확 달아오르며 나도 모르게 붉어진 얼굴로 대답을 했다.

“봉투를 주기에 그냥 돌려보냈는데요. 김 부장이 뭐라던가요?”  
내 대답을 들은 직원은 난감한 표정으로 “그냥 저를 만나라고 하시는 게 나았을 텐데..., 나눠줘야 할 사람도 있고...”라며 얼버무렸고, 나는 내가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친구에게 전화로 뉘두리를 했더니, “야, 그건 상식이야. 명절에 업체에서 뭘 갖고 오면 중간 간부가 받아서 잘 배분해야지. 그 정도 상식은 좀 가져라. 너무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잖아” 라면서 영업사원의 다양한 인생경험을 들려주었다. ‘상식’ 이라..., 그런 것도 ‘상식’ 이구나. 그렇게 그날 밤이 지나갔다.

몇 년이 흘러 다른 도시로 전근을 가게 되었고 명절이 다가온

어느 날, 총무과장이 과장들을 전부 불러 모았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명절인데 지점장한테 입 싹 닦을 수는 없잖아. 상식선에서 조금씩만 거두자.”

순간 ‘아, 또 그 어려운 상식이 나오는 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다른 고참 과장들의 ‘상식’ 에 따라서 몇 만 원씩 각출이 있었고, 총무과장이 그걸 상품권으로 바꿔서 지점장실에 들어갔다. 그런데 몇 시간 후 난데없이 지점의 전 직원들 앞으로 식용유 선물세트가 배달되었다. 지점장이 상품권으로 선물을 사서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이었다. 그날 저녁 지점장이 말씀하셨다.

“김 과장이 나보다 월급을 많이 받나? 고참들이 그런 생각하더라도 젊은 사람이 아니라고 해야지.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젊은 과장이 그 정도의 상식도 없어.”

지점장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상식’ 이 머릿속을 어지럽히기 시작했다. 아, 우리의 ‘상식’ 은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할까. 홍자성이라는 현인은 자신의 책(榮根譚)에서 왜 “수지청자 상무어(水之清者 常無漁,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남겨서 나같이 ‘상식’ 이 모자라는 사람들을 비웃게 하셨을까. 그러나 채근담의 원문은 “더러운 땅에는 많은 생물이 살지만,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 그러므로 참된 사람은 때 묻은 것을 감사하고, 더러운 것을 너그러이 받아들이며, 너무 깨끗한 것만을 좋아하여 혼자 행하는 지조를 가져서는 안 된다”이다.

첫 번째 문장만 보면 다른 사람들처럼 두루뭇술하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군자는 옳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되, 남의 잘못을 비난하거나 남의 잘못을 핑계로 사람을 상

「제1회 공직자 청렴에세이 공모전」 최우수상 당선작

## 모두의 ‘투명(透明)한 상식(常識)’을 기다리며

글 · 김상노 한국전력공사 대구경북본부



대하지 않는 독단을 피하라”는 뜻이다. 그것은 ‘군자의 범부에 대한 배려’이며 ‘본보기를 통한 교육’의 뜻이 아닐까.

내가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지 벌써 16년, 세상은 참으로 많이 변했지만 아직도 나는 ‘상식’의 잔 부스러기들이 너무 어렵다. 3만 원의 축의금은 너무 적은 것 같고, 5천 원의 점심식사는 상대방을 소홀하게 대접하는 것 같다. 선배가 부탁한 업무는 어떻게든 처리해야 할 의무감에 불탄다. 나는 그런 ‘상식’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이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상식’이란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일반적인 전문과 이해력, 사리분별 따위가 포함됨”이라고 적혀있다. 그런데 왜 나는 많은 경우에 ‘상식’에 당황하고 ‘상식’에 짜증이 날까.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상식’을 서로 묻고, 서로 자기 ‘상식’이 맞다고 주장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는 지식이고 기준인데….

공직자는 청렴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자본주의에서 모든 공직자에게 ‘나물 먹고 물 마시는’ 청백리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공직자의 재산 이야기가 국민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술자리의 안줏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물이 깨끗하면 물고기가 못사는 것’이 상식이 아니라, ‘1급수에는 가장 귀한 고기가 살고 있는’이 명백한 상식이 되어야 한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해가 동에서 서로 지는 것이 ‘상식’인 것처럼, 청렴한 공직자가 더욱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이 ‘상식’인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상식, 모두가 다 알고 공감하는 ‘상식’, 너무 명확해서 모두 고개를 끄덕이는 이런 ‘투명한 상식’의 시대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면, 나는 아직도 ‘상식’이 부족한 사람일까. 🌱

## ★ 「제1회 공직자 청렴에세이 공모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9년 「제1회 공직자 청렴에세이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공직자들에게 반부패 청렴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건전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개최된 행사로, 중앙·지방·교육행정기관 및 헌법기관 소속 현직 공무원과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 소속 현직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공모전 주제는 ‘공직생활에서 청렴을 소재로 한 감동적인 내용’으로, 접수는 2009년 10월 30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일간 이루어졌다. 제1회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356편의 작품이 접수되어 청렴에 대한 공직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15일간 심사를 통해 12월 7일 수상자가 발표되었다. 최우수상 김상노(한국전력공사 대구경북본부), 우수상 박동해(근로복지공단 감사실), 조형진(서울대학교 기획처), 장려상 노상욱(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 김승제(전라남도 영광군), 박노욱(한국전력공사 부산본부), 허정순(관세청 부산세관), 임철환(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 이창윤(한국관광공사 관광경쟁력본부), 차국진(육군 제2501부대), 김화숙(서울특별시 금천구청), 구정민(울산 호계초등학교), 강삼석(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 수/상/소/감



직장생활을 시작한 이후,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인터넷이 생기면서 모든 정보가 오픈되고, 오픈된 정보가 사람들의 사고방식까지 오픈시키면서 부끄러운 것들은 숨기기 힘들고 감추기 어려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문화도 그렇게 많이 변해왔는데 어쩌면 공직자들의 사회만 가장 느린 변화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공기업에 근무하는 것이 훈장이 아닌 십자가가 되는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청렴’이라는 단어는 참 어렵습니다. ‘청렴(淸廉)’이라는 한문도 어렵지만,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맑고 곧다’는 것이 얼마나 지키기 힘든 약속인지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전력사업의 최일선에서 그 ‘맑고 곧음’을 보여주신 우리 한전의 선배님들께 오늘의 작은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한전이 만들어내는 빛이 전기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전의 투명함과 깨끗함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믿음이 자리 잡기를 감히 소망해 봅니다.

끝으로 항상 제 곁을 지켜준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고맙고, 소정, 준엽, 동엽에게 귀찮은 남편, 멋진 아빠가 된 것 같아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채불 보도한 MBC <시사매거진 2580> 김혜성 기자의 취재노트 상습적 임금채불에 울상 짓는 근로자들을 보호하라

노동부가 매년 임금채불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임금채불 사례는 줄지 않고 있다. 취재 결과 남성이든 여성이든, 사무직이든 육체노동직이든,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 오늘은 남의 일이지만 당장 내일하면 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임금채불이었다.

글 · 김혜성 MBC <시사매거진 2580> 기자



대부분의 시사고발 방송프로그램은 “OO씨는 얼마 전 이러저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피해를 겪은 사람들의 경험담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시작되곤 한다. 때문에 자신의 겪은 일을 인터뷰를 통해 방송하도록 허락해주는 제보자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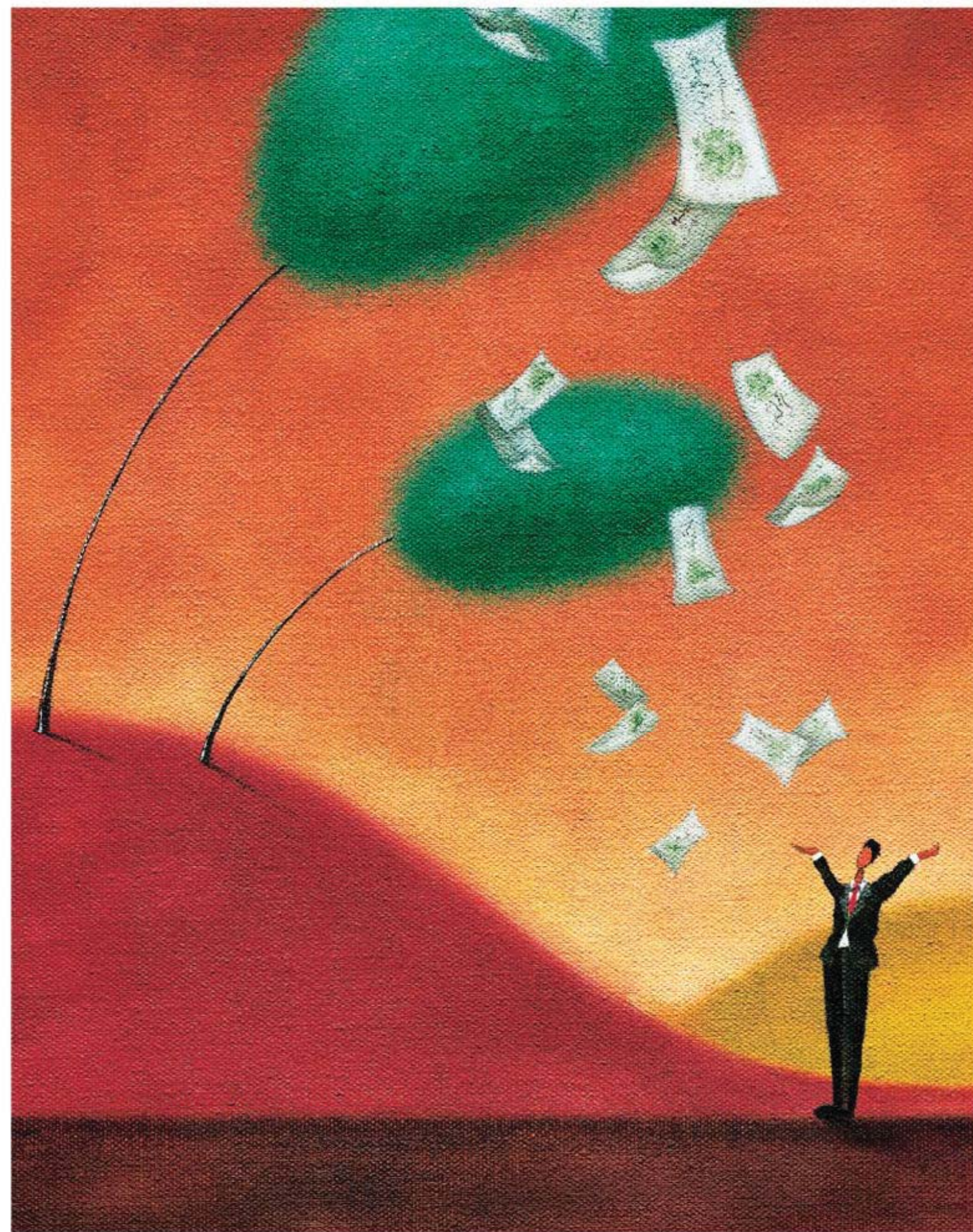
상당수 제보는 회사 제보란을 통해 들어온다. 각 방송사에는 회사 제보란이 마련되어 있는데, MBC의 경우 784-4000번으로 걸려오는 제보전화는 모든 기자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통합 관리된다. <시사매거진 2580>의 경우에는 789-2580번으로, 이 번호로 제보된 내용은 <시사매거진 2580> 담당 작가와 기자만이 따로 볼 수 있게 되어있다.

필자는 취재를 위해 틈날 때마다 회사 제보란에 들어가 내용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본다. 제보자들은 어떤 범죄나 말도 안 되는 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다. 이들의 제보 과정은 비슷하다. 우선 개인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보고 해결이 잘 안되면 다음엔 국가나 정부기관에 민원을 넣는다. 여기에서도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언론기관을 두드린다. 때문에 사소한 일로 흥분하여 장문의 글을 남기는 제보자도 있고, 다짜고짜 불만만 쏟아놓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어디에서도 피해를 호소할 길이 없어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언론사를 찾는 분들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연들이다.

### 임금체불, 남의 일 아니다

다양한 제보들이 들어오지만 특정 시기에 어떤 제도나 사회 현상에 대한 제보가 집중적으로 쏟아져 들어온다면 배후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눈에 띄는 제보는 지난해 12월부터 집중적으로 쏟아진 임금체불에 대한 제보였다.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는 제보자들은 유달리 혹독한 올겨울 추위 속에서 작게는 몇 십만 원부터 크게는 몇 백만 원까지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해 길거리 시위를 하고 관공서를 찾아다니고 있었다.

그중 몇 가지 취재 내용을 소개하면, 우선 유명 학원가에서 강사로 일했던 B씨의 임금체불 취재로, B씨는 매달 10일 월급날에 돈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다. 학원측은 으레 일주일에서 한 달 가까이 늦게 지급하곤 했고, 월급을 안주고 있다가 강사 한 명이 그만두면 바로 다음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곤 했다. 6개월을 버티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한 달 치 월급 250만 원을 받지 않은 채 학원을 그만뒀고, 얼마 뒤 밀린 월급을 달라고 찾아간 B씨에게 학원 부원장은 대놓고 욕을 퍼부었다. 그리고는 오히려 학생들의 기말고사 기간 일주일 전에 그만뒀다며 학원에 피해를 줬다며 돈 받



을 생각은 고사하고 고소당할 준비나 하라고 했다. 물어 물어 노동청을 찾아간 B씨는 한 번 더 절망을 느껴야 했다. 이미 그 학원은 노동청에서 모르는 직원들이 없을 만큼 몇 년 전부터 상습적 임금체불로 유명한 곳이었던 것이다. 이에 제보자는 ‘250만 원 안 받아도 좋다, 다만 이렇게 임금이 체불되면서 학원 강사가 수시로 바뀌어 학원 아이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을 학부모들에게 알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선생님이 그 학원에 들어가 괜한 고생을 하지 않도록 막자’고 생각해 용기를 내어 제보했다.

B씨의 제보로 B씨와 동행해 학원 안으로 들어가 인터뷰를 요청하자 학원측은 제작진에게 무단침입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큰소리 쳤다. 법을 무시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측일수록 ‘법대로 하자’며 핏대를 세운다는 걸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취재는 건설현장 임금체불 문제였다. 공사가 끝나면 일했던 현장 사무실과 인력 조직 등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지는 건설현장은 그야말로 임금체불의 온상이었다. 한 감리회사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공사를 끝마친 뒤 복사기 한대만 달랑 남겨두고 잠적한 사장을 쫓고 있었고, 찜질방에서 잠을 자며 철야로 공사 기한을 맞



춘 건설 노동자들은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대금 지급이 중지됐다는 얘기에 영하 13도의 혹한 속에 뚱뚱 언 맨땅바닥 앉아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노임을 떼인데다 현장 반장에게 생돈까지 뜯긴 한 중국인 노동자는 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고국으로 돌아갈 시한을 넘긴 채 불법체류자가 됐다. 아내와 아들과는 5년째 생이별한 상태였다.

### 근로자 날개 꺾는 임금체불 문제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일단 해당 지역의 노동관서에 진정을 낸다. 이는 경찰에 고소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수사해 체불임금 액수를 확인한 뒤 사업주를 압박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이쯤에서 뒤늦게라도 밀린 월급을 주면 사업주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노동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임금 지급이 안 될 경우 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돼 검찰에 송치되지만, 노동청과 달리 검찰에서는 밀린 월급을 받아주는 일을 하진 않는다. 단지 형사처벌 여부만 결정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실제 체불된 임금을 받아내려면 근로자 스스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검찰에서 체불 업주에게 강력한 형사처벌이 내려진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라도 되겠지만, 대부분 수십만 원의 벌금형에 그친다. 민사소송에서도 회사가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체라면 사장 개인의 재산은 압류도 하기 어렵다. 결국 몇 달 동안 이런 과정을 겪고 나면 근로자는 돈 한 톨 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런 관행 때문에 악덕 업주들은 ‘밀린 월급 3백만 원 줄 것 3십만 원 벌금만 내고 때운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임금체불은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있었다.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임금 3백만 원을 몇 달째 주지 않은 채 노동청 출석요구도 피하고 있는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임금체불 이유를 물었더니 “기자가 남의 월급 대신 받아주는 사람이야? 내가 외제차를 타고 다니든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세상에 수십억씩 떼어먹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MBC 방송이 취재할 게 그렇게 없어? 내가 취재꺼리 줄까?”라며 도리어 당당하게 소리를 질러댔다.

노동청의 근로감독관도 체불 업주가 밀린 월급을 주면 다행이지만 끝까지 안주고 버티면서 재산을 빼돌려 놓으면 자신들도 방법이 없다고 한다. 임금체불을 취재한다고 했을 때의 주변 반응도 “그게 뭐 하루 이틀 얘기냐?” 였다. 이른바 주류 언론에서는 이런 이유로 이 같은 이슈들을 잘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그냥 열심히 일만 했을 뿐인

사람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마음을 다치게 만들고 있었다. 더불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내기조차 이토록 힘든 현실 앞에서 이들은 결국 돈도 포기한 채 사회에 대한 원망만 쌓아가고 있었다.

### 노동자가 가져야 할 마땅할 권리를 위해

이런 취재 과정을 거쳐 2010년 1월 10일 <시사매거진 2580>에 임금체불 관련 방송이 나갔고, 8일 뒤 정부는 임금체불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공식적으로 신고 된 임금체불 액수는 1조 3천 438억 원, 체불 근로자 수는 30만 명으로, 1인당 평균 450만 원 정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체불임금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매년 설이나 추석 등을 앞두고 의례적으로 발표하곤 하지만, 올해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의 이름을 공개하고, 지급이 늦어지는 기간 동안 임금에 이자도 붙여 주도록 하는 등 보다 강도 높은 내용들이 포함됐다.

살기 좋은 세상, 선진 사회는 거창한 게 아니라 상식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선량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사회, 혹시라도 그런 봉변을 당했을 때 적절한 대응 조치가 뒤따르는 사회일 거라고 믿는다. 과연 우리 사회가 그런 이상향에 얼마나 가까운 지, 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구성원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 지, 특히 가장 마지막 보호막이 되어야 할 언론이 얼마나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생각들이 취재기간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

### ✧ 법으로 보호받는 근로자들의 권리

회사로부터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 우선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기간을 정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한다. 지방노동관서의 이러한 지시에 사용자가 응하지 않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청구하는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류 심사만 한 후 바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주기 때문에 절차가 신속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 청구하는 금액이 큰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가 부담스럽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영세민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무료로 소송을 도와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민원안내 콜센터(국번없이 110) 또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간단한 상담이 가능하며, 노동부 전자민원센터(minwon.molab.go.kr)에서 인터넷을 통한 질의응답도 가능하다.



더 투명한 세상 더 행복한 미래,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 행/복/누/림

희망 인터뷰

우리가 먼저

테마가 있는 여행

생활법률 110

통째로 보는 책 한 권

훈훈한 세상

32

36

38

42

44

46

가수 장윤정

군살 빼는 기업문화, 녹색 지구 만든다

매봉 중발골, 뱃길 낭만에 가슴 설레는 오지 계곡 탐험

미소금융으로 활짝 웃고 새롭게 출발하세요

〈그린쇼크〉

국민권익위원회 '1사1촌' · '1과1결연' 봉사활동





## 자신의 재능을 이웃에게 나눠줄 줄 아는 진정 ‘빛나는 스타’ 가수 장윤정

세대를 초월해 대중들에게 꾸준히 인기를 얻는 음악 장르가 ‘트로트’이다. 한국인 고유의 정서를 담고 있는 트로트. 그리고 이 ‘트로트의 여왕’은 단연 ‘장윤정’이다. 올해 서른한 살. 비교적 젊은 나이지만, 세대를 넘어 온 국민에게 골고루 사랑받고 있는 대중 가수, 장윤정을 만나보자.

글·허주희 인터뷰 칼럼니스트

흥겨운 콧노래에 언제 들어도 어깨가 절로 들썩이는 트로트곡 ‘어머나’는 오늘날의 장윤정을 있게 한 노래다. 가녀린 체구에서 나오는 열창과 간드러진 콧소리는 장윤정의 트레이드마크이다. 어느새 2010년, 최근 근황에 대해 물었다.

“현재 SBS방송국 ‘도전 1000곡’의 진행과 대전방송의 ‘전국 TOP 10 가요쇼’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요즘은 5집 앨범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에서는 좀 더 세련되고 고급화된 퓨전 트로트곡으로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온 국민이 들어서 즐겁고 흥겨운 노래를 부르하고자 합니다.”

그는 올 봄부터 전국 투어 콘서트를 시작한다. 문화 소외 지역인 지방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대중들과 좀 더 가까이 만나는 전국투어를 기획하고 있다.

### 위문공연, 홍보대사 등 좋은 일에 적극 나서

장윤정 씨는 약 5년 전부터 전국 각지를 다니며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다. 그가 전 세대를 아우르며 인기를 얻은 것은 이처럼 방송만 고집하지 않고 팬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열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또 노래만 잘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에도 적극 참여하는 따뜻한 마음도 가졌다. 벌써 6년째 기톨릭 대학교 성모병원 위문공연을 해오고 있으며 2008년에는 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홍보대사’, 최근에는 ‘어린이재단 홍보대사’를 맡아 활동하고 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해맑게 웃는 환우와 보호자들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분들을 통해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힘들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가 잠시라도 웃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제가 얻는 기쁨이 큼니다.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함께 할 것입니다.”

그는 또한 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어린이 안전교육을 위해 사람들에게 캠페인 홍보물을 배부하고 어린이집을 방문해 일일교사도 하면서 안전 교육 알리기에 나서기도 했다.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어린이는 교통사고에 많이 노출돼 있어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안전장치와 예방교육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는 가수로서  
무대에 서 서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민들의 억울함을  
달래주니 어쩌면 이  
둘은 비슷한  
모양새로 서민들의  
마음 한 구석을  
채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 서민들이 행복한 세상,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가 되기를

장운정은 트로트 데뷔곡인 ‘어머나’를 시작으로 ‘짹짹’, ‘이따 이따요’, ‘꽃’ 등 많은 히트곡을 내면서 ‘트로트의 여왕’으로 군림해 대중의 끊임없는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여러 장르의 음악 중에서 트로트는 모든 국민이 즐길 수 있는 노래이며, 서민의 삶과 정서를 담아 공감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공연을 할 때, 삶의 현장에서 꾸밈없이 반겨주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 가수로서의 책임감까지 느낍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기쁘게 하고 또 위로해줄 수 있는 노래에 더 많은 애착과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겸손하고 소박한 모습, 거기다가 듣는 이의 가슴을 절절하게 울리는 목소리. 대한민국 남녀노소 누구나 그녀를 사랑하게 만든 매력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 무대에서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어 보이는 그는 언뜻 봐서 가수로서 타고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굉장한 연습 벌레이다. 데뷔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쉬어본적 없이 연습과 공연에 숨 가쁘게 달려온 그. 언제나 바쁜 일정이지만, 대중의 인기를 얻고 사는 대중가수는 공인이기도 한다는 생각에 그는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에는 앞장서고 있기도 하다. 이번 <국민권익>지 인터뷰를 하며 그는 우리 사회가 부정부패 없는,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평소 생각을 밝히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 억울한 서민들이 없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앞장서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가수로서 무대에 서 서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권익위는 서민들의 억울함을 달래주니 어찌면 이 둘은 비슷한 모양새로 서민들의 마음 한 구석을 채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 ‘트로트 여왕’ 타이틀에 책임 느끼며 더 열심히 하게 돼

“저는 노래를 하기 위해 무대에 오르기 전에 긴장이 되지 않고 오히려 너무 신나요. 빨리 무대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그만큼 노래하는 순간은 저에게 최고의 시간이죠. 저에게 주어진 ‘트로트 여왕’이라는 타이틀에 대해서 책임감과 부담감을 함께 느낍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제게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장운정은 ‘짹순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평소 검소와 알뜰함이 몸에 배어있다. 지금은 돈 잘 벌고 남부러울 것 없는 대중 스타가 되었지만, 무명시절을 거치면서 매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어둠만이 존재하는, 희망이 안 보이던 시절이었다. 이런 어려운 시절을 보낸 그녀이기에, 뭐든지 아끼고 절약하며 낭비를 하지 않는다.

“장운정을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과분하게 받은 사랑만큼 앞으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주는 노래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은 대스타가 되었지만, 항상 신인 때의 초심을 잊지 않는 장운정.

주변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재능을 나눠줄 줄 아는 그는, 진정 ‘빛나는 스타’가 아닐까한다. 🌈





## 권익위, 친환경·녹색성장에 적극 동참 군살 빼는 기업문화, 녹색 지구 만든다

녹색성장이 화두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에너지를 아끼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뿐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허리띠를 바짝 조인다. 정부의 친환경·녹색성장에 적극 동참하고, 내부 업무개선을 통해 남은 인력과 예산을 새로운 업무에 투입하기 위함이다.

글·서승범



지난해 말, 38개 대기업이 향후 3년 동안 에너지사용을 연평균 1.0~4.9% 줄이기로 지식경제부와 에너지목표관리제(NA, Negotiated Agreement) 시범 사업 협약을 맺었다. 참여기업은 GS칼텍스와 SK에너지 등 정유사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전자회사,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대표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업종에 해당한다. 이들 기업은 향후 47개 사업장에서 에너지 사용을 기준치에 맞게 줄여야 한다. 해당 기업들이 지난해 사용한 에너지 총량은 전체 산업부문의 41%에 달하는 4,300만 TOE(Tonnage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 1TOE는 석유 1톤을 연소시켰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로, 이들이 목표치를 달성할 경우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를 모두 합치면 150만TOE이다. 480tCO<sub>2</sub>(이산화탄소톤, 각종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환산한 단위)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수치다. 기업들이 제시한 감량목표치는 분석과 협상을 통해 오는 3월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에너지목표관리제는 정부와 기업이 에너지사용 목표를 협의해 결정하고, 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배출전망치 대비 30%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내년에는 5만TOE 이상 사업장 222개, 2012년에는 2만TOE 이상 사업장 423개가 관리 대상이 된다. 공공기관과 연간 에너지소비량 1만TOE 이상의 대형건물 역시 내년부터 대상이 되고, 정부종합청사와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올해부터 이미 적용되었다.



### 38개 대기업 에너지목표관리제에 동참

기업들은 목표 감축량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에너지 절감계획을 내놓았다.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은 “열교환기와 폐열회수 시설을 설치하고 스팀 회수 제고 장비에 2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김종갑 하이닉스 사장은 “1조5000억 원을 투자해 에너지 재생환기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기업들의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했다.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용자사업 범위를 계측장비와 에너지경영시스템 등으로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전문기업을 활용한 투자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적용시킬 방침이다. 나아가 시범사업 기간 중 업종별 에너지경영시스템 표준 모델을 발굴해 업계에 확산시키고, 세계적인 에너지효율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현장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물론 에너지목표관리제가 아니더라도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예산을 아끼기 위한 기업들의 비상경영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지난 2008년 한국전력은 ‘마른 수건도 다시 짰다’는 에너지 절감 표어를 내세워 5,200억 원의 예산 감축을 단행했다. 회사의 업무추진비도 20%이상 줄였고, 문서의 컬러 인쇄를 금지시켰다. ‘Cut-15’라 해서 사무실 소비전력은 15% 이상 줄였고, 사내 엘리베이터

역시 3개 가운데 하나는 운행을 중지시켰다. SK는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사무실 자동 소등 시스템을 가동하고 주차장과 화장실의 조명 조도를 낮추었다.

국가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원자력발전 생산을 증진하는 법안을 발표했고, 프랑스와 브라질은 코펜하겐 회의에 대해 양국의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일본은 올해부터 환경세를 도입하고 기후변화대책에 9천억 엔을 추가로 배정했다. 노르웨이는 산림벌채를 막기 위해 가이아나에 25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 녹색 세상을 만드는 권익위의 작은 노력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에너지 소비와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권익위에서 사용한 종이의 양은 모두 3,783박스, 7,508만 원 정도가 쓰였다. 하지만 올해 구입한 종이는 1,512박스, 작년의 40%에 해당하는 양에 지나지 않는다.

부족분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아껴 쓰는 것! 전자결재가 가능한 사안은 되도록 서면 결재를 하지 않고, 간단한 보고는 서류 대신 메모나 이메일로 하기로 했다.

보고서의 형태도 많이 바뀌었다. 보기 편하고 좋은 것보다 ‘실질’을 택했다. 표지를 따로 만들지 않고, 글자 크기와 줄간격도 13포인트와 130%로 정했다(현재 15~16포인트, 160~180%). 인쇄나 복사를 할 때는 이면지를 활용하고 2쪽 인쇄와 양면 복사를 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업무 가운데 10% 가량의 불필요한 업무를 찾아 폐지하거나 축소하도록 했다. 그 결과 감축된 업무만큼 정원을 재조정해 18명을 새로운 사업에 배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이재오 위원장 집무실의 전등을 1/3 이상 없앴고, 청사 전체적으로도 엘리베이터 홀과 복도, 화장실, 휴게실 공간 등의 전등도 70% 소등했다. 권익위의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가 지난해 시범적으로 시작한 ‘에너지목표관리제’ 와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같은 ‘군살빼기’ 노력과 관련해 올해 초 권익위 이재오 위원장은 “친환경·녹색성장에 적극 동참하고, 업무 효율화를 통해 남는 인력을 새로운 업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내부 업무개선을 적극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을 개선해 전체 예산의 0.5%를 절감하라”는 기준치도 제시했다.

이처럼 권익위가 허리띠를 조이는 것은 권익위 내부에서 과감한 변화를 솔선해서 시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함이다. 군살을 빼기 위한 권익위의 노력은 목표가 있을지언정 끝은 없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은 업무나 과제가 아닌 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절약한 예산보다 더 중요한 건 에너지를 아끼면서 업무효율은 높이는 시스템의 생활화다. 그것이 군살을 빼야 하는 진짜 이유다. 🌱



매봉 중발골

## 뱃길 낭만에 가슴 설레는 오지 계곡 탐험

겨울 끝자락에 떠나는 여행에 필요한 건 때 묻지 않은 질박한 풍경을 충분히 담아올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다. 넉넉한 마음과 가벼운 발걸음으로 떠난 매봉산 중발골에 도착하니 샛노란 산동백의 수줍은 미소가, 이름 없는 폭포의 맑은 하모니가, 수려한 풍경이 마음을 사로잡는다. 중발골을 다시 찾고 싶은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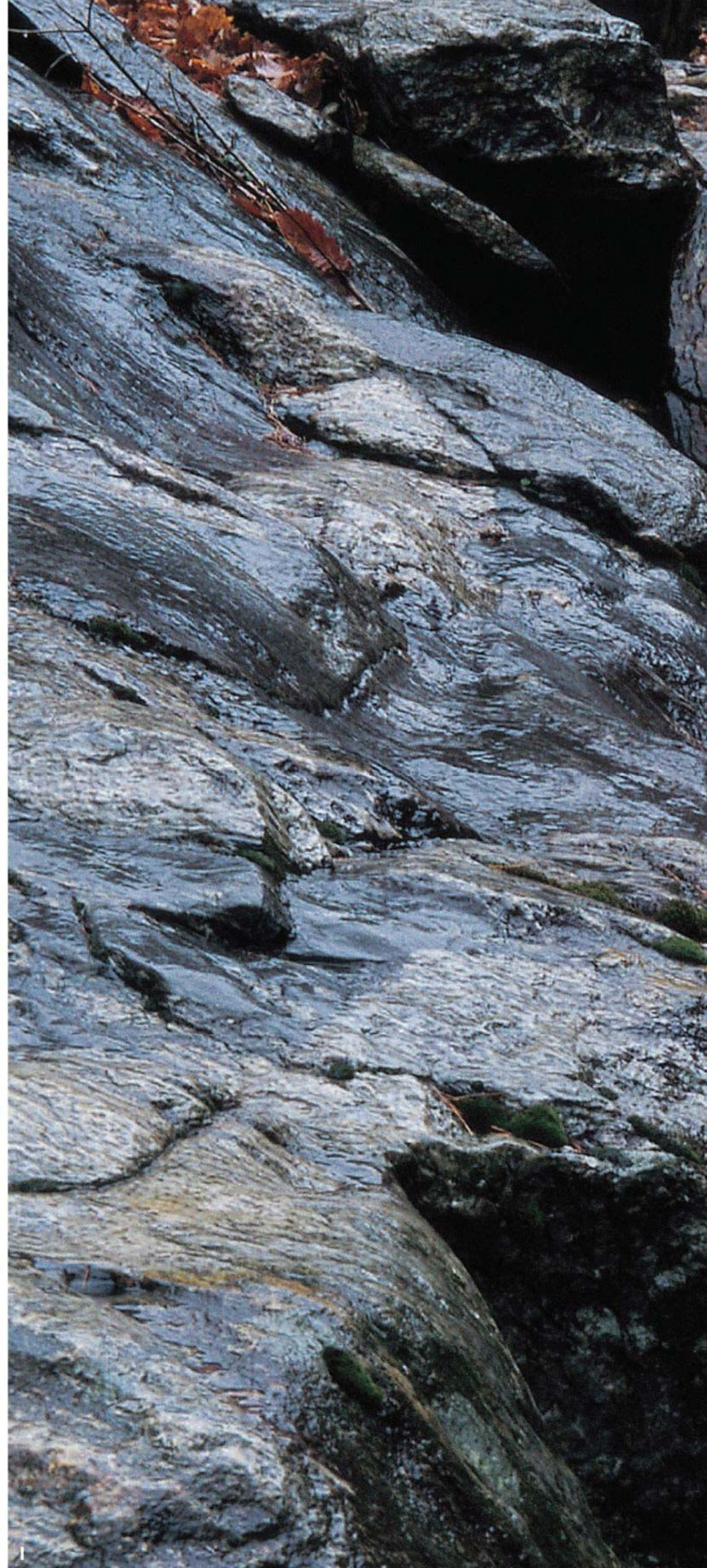
글 사진 · 신성순 여행칼럼니스트

**화**창한 어느 날, 춘천 소양댐 나루에서 연락선에 오른다. 육로로 편히 갈 수도 있지만 굳이 배를 타는 것은 색다른 여정을 느끼고 싶은 욕심 때문이다. 호수의 정취까지 맛볼 수 있는 오지 계곡 탐험이라니.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지 않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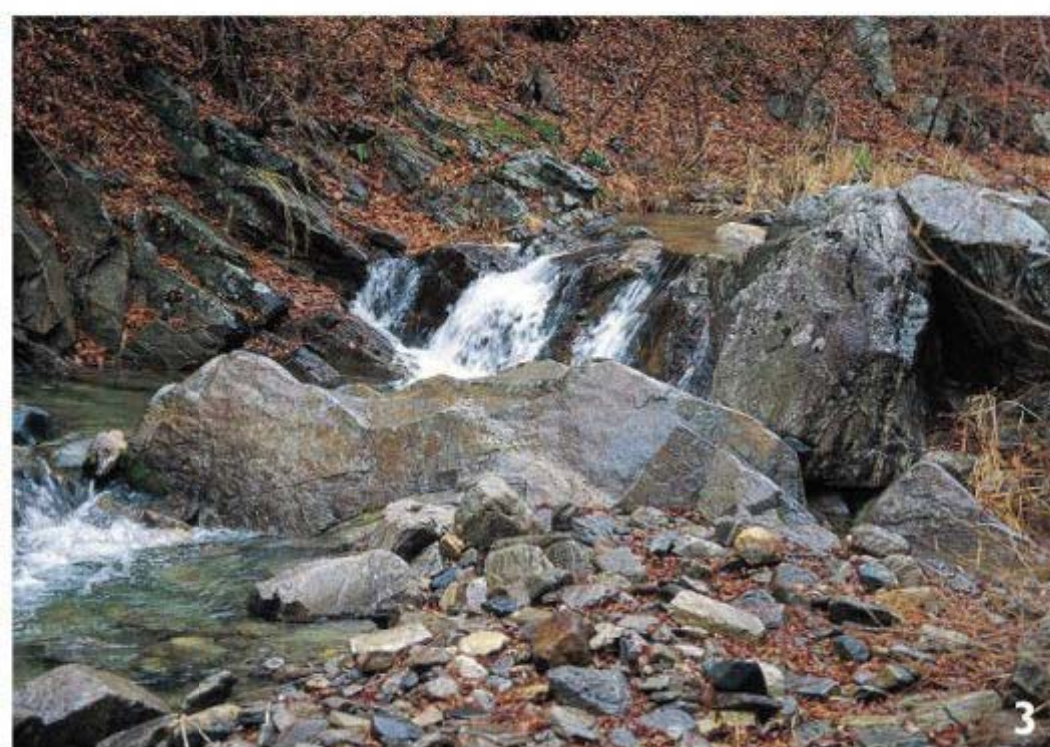
배 안에는 관광객이나 등산객은 별로 없고 낚시꾼들이 대부분이다. 낚시터로 이름난 포인트가 소양호 일원에 술하게 널린 까닭이다. 하루 두 차례 떠나는 정기 연락선은 동남쪽 멀리 가리산 자락을 바라보며 물살을 헤친다.

좌우로 펼쳐지는 호반 풍경이 마음을 사로잡는다. 북으로는 봉화산, 남으로는 후봉과 곧은봉이 이어지면서 산기슭마다 숨어 있는 꽃들이 봄을 맞이할 채비를 하고 있다. 녹음 짙은 여름과 단풍 빛 고운 가을 정경도 분명 아름다우리라. 푸른 호수를 가르는 뱃길의 낭만을 50분 남짓 즐기는 사이, 배는 조교리 나루에 이물을 들이민다.

북산면 조교리는 행정구역으로는 춘천시에 속해 있지만 시내 버스도 들어가지 않는 오지 마을이다. 험준한 산악으로 빙 둘러싸인 이 마을도 오지라는 누명(?)을 벗을 기회가 일찌감치 있었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 홍천군 두촌면 원동리로 통하는 홍천고개 도로 공사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1. 중발골에는 작은 폭포인 쏘이 많다.
2. 산동백의 표준어는 생강나무이며 새양나무라고도 한다.
3. 무애골은 중발골보다도 한적하지만 경치는 덜하다.



하지만 1965년~1973년 소양댐이 들어서면서 북산면 소재지였던 내평리(현재의 북산면 소재지는 오항리)가 물에 잠기는 바람에 공사는 물거품이 되었다. 그래서 육로를 따라 조교리로 들어오려면 미완성 홍천고개를 힘겹게 넘어야 했다. 주민들은 뱃길로 춘천을 오갔고 생활필수품은 지프형 자동차를 이용해 홍천에서 구입해 오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그러다 2003년 홍천고개가 포장되면서 비로소 교통의 오지라는 굴레를 벗어 던졌다.

### 맑은 웅덩이와 쏘이 이어지는 비경

조교리는 바위산(858m), 매봉(800m), 매봉남봉(710m) 등의 준봉을 뒤로 하고 소양호를 바라보는 배산임수의 명당에 파묻힌 아늑한 마을이다. 조교리를 에워싼 이 산들은 700~800미터급 산치고는 제법 덩치가 우람한 데다 인적 드문 비경의 골짜기들을 허리춤 곳곳마다 품어 심산유곡의 향내가 그윽하다. 특히 매봉 서쪽 기슭의 중발골은 수많은 쏘(작은 폭포라는 뜻의 순우리말)와 깊은 웅덩이들이 실 새 없이 얼굴을 내밀며 빼어난 자태를 뽐낸다.

조교리 나루에서 25분쯤 걸으면 매봉 등산로 입구에 이른다. 조교2교를 건너 200미터 가량 가면 계곡이 둘로 갈라진다. 왼쪽이 중발골이고 직진에 가까운 오른쪽 계곡은 무애골로 이어진다. 어느 골짜기로 들어서든 매봉 정상으로 오를 수 있지만 중발골 쪽 경치가 한결 아름다우니 그리로 가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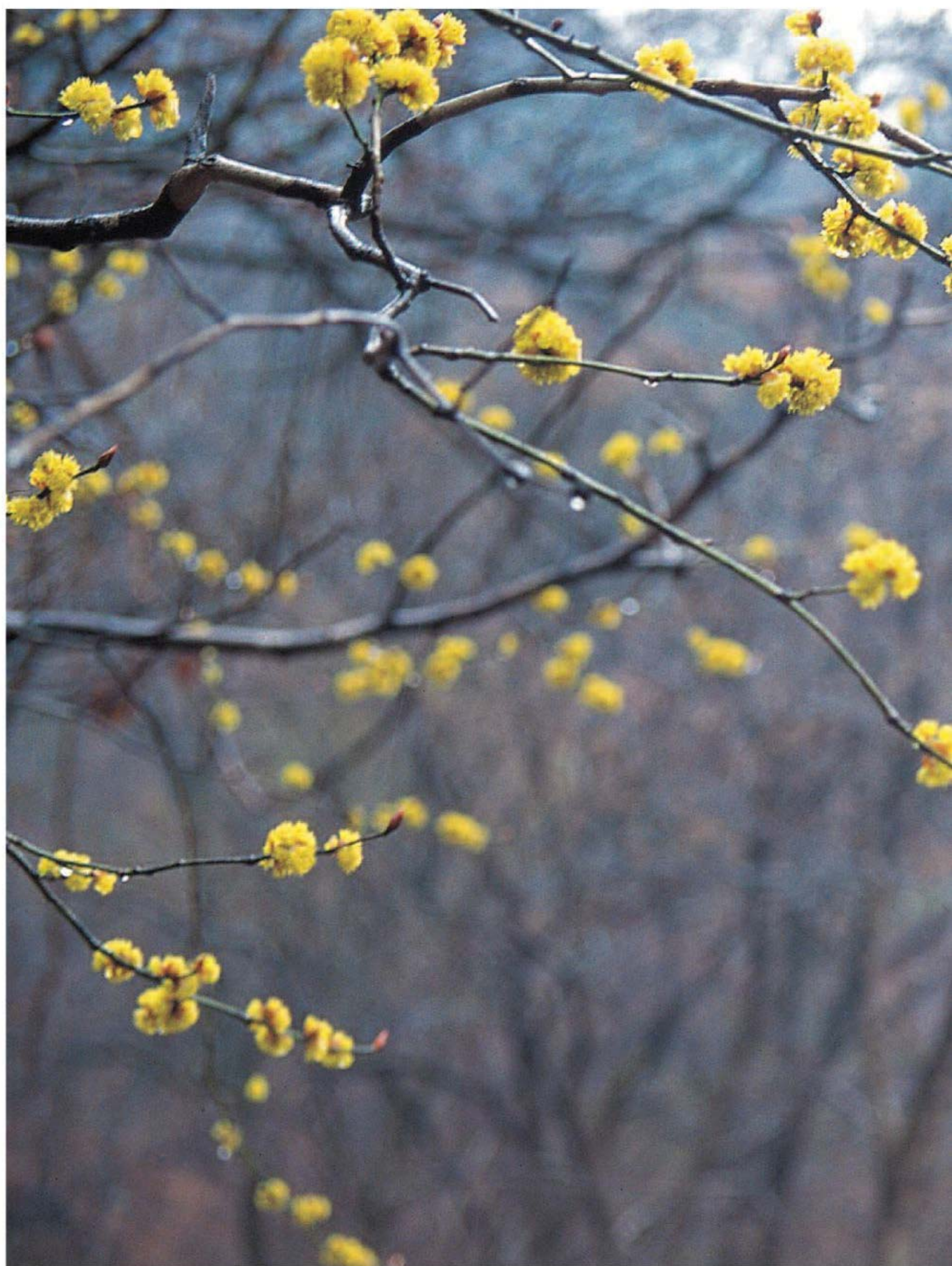
세찬 물소리와 더불어 초입부터 범상치 않은 분위기에 휘감긴 중발골은 상류로 올라갈수록 운치를 더해 간다. 푸른 이끼 낀 바위들이 이 골짜기의 청정함을 말해주고, 돌돌 구르던 맑은 물은 작은 벼랑을 만나 어쩔 수 없이 쏘를 이룬다. 그 아래로는 푸른 웅덩이가 큼지막한 입을 벌리고 별떡별떡 청정 옥수를 들이켠다.

산길과 계곡은 숨바꼭질하듯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사이 좋게 나란히 간다. 오롯이 돌아 오르는 산길 여기저기서 샛노란 산동백꽃이 미소 짓는다. 잎이 나기 전에 노란빛 작은 꽃들이 여럿 뭉쳐 우산 모양 꽃차례를 이루며 달린 모습이 귀엽다.

이름만 비슷할 뿐이지 산동백과 동백은 전혀 상관이 없다. 산동백의 표준어는 생강나무이며 새양나무라고도 한다. 새로 잘라낸 가지에서 생강 냄새가 나서 생강나무라고 부르는 것인데, 열매에서 기름을 짜므로 산동백이라는 별칭으로도 널리 불리는 것이다.

### 맑은 물 굽이굽이 흐르는 호젓한 계곡 길

겨울의 끝을 알리는 산동백이 느릿한 걸음의 봄에게 빨리 오라고 재촉한다. 덩달아 내 걸음도 빨라진다. 이곳은 청정지역이므로 물이 맑은 것은 분명할 터. 별걱별걱 계곡 물을 그냥 마신다. 이토록 달고 시원할 수가 없다.



1. 샛노란 산동백이 겨울의 끝을 알린다. 2. 때 묻지 않은 순수함을 지닌 매봉산. 3. 소양호를 헤치고 연락선이 달리고 있다.







40분쯤 계곡 길을 헤치면 14번째로 물을 건너는 지점에서 이름 없는 폭포와 만난다. 높이는 비록 5미터 남짓하지만 제멋대로 박힌 바윗덩어리들이 자연스러운 균형 감각으로 조화를 이루고, 비단 같은 흰 물줄기 아래로는 넓고 푸른 웅덩이가 드리워 저절로 경탄을 자아낸다. 여름이라면 한바탕 수영하기 딱 알맞은 곳이다.

가족 여행을 즐기러 왔다면 더 멀리 올라갈 것도 없겠다. 여기에 자리 잡고 폭 쉬면서 도시락도 먹고 맑은 공기도 마음껏 들이마시노라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을 터. 한데 왜 이리도 사람이 없을까.

이왕 온 김에 2시간 30분쯤 더 올라 매봉 정상에 밟는 것도 좋다. 정상에서는 북서쪽으로 바위산(858m)이 우뚝하고 시계 방향으로 눈을 돌리면 수산리 분지, 응봉산(887m), 가마봉(925m) 등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조망이 시원스럽다. 내려오는 길은 중발골을 다시 더듬어도 좋고 무애골을 거치는 것도 괜찮다. 🌈

## ✧ 여행정보

**드라이브 메모** \_ 차를 갖고 갈 경우, 6번 국도-용두 교차로-홍천·인제 방면 44번 국도, 또는 서울춘천(60번)고속도로-춘천 분기점-중앙(55번)고속도로-홍천 나들목-인제 방면 44번 국도를 거친다. 철정3거리로부터 약 10km 지점인 자은 삼거리에서 좌회전, 12km 가량 달리면 홍천고개를 넘어 조교리에 이른다.

**대중교통** \_ 청량리역에서 경춘선 열차 또는 동서울 터미널이나 상봉 터미널에서 직행버스를 타고 춘천으로 온 뒤에 소양댐 방면 시내버스로 갈아탄다. 소양댐 나루에서 조교리로 가는 배는 오전 7~8시 무렵과 오후 2~3시 무렵에 뜨는데 철따라 운항 시간이 조금 달라진다. 오전 배는 50분쯤 걸리고, 오후 배는 물로리부터 들렀다가 조교리로 가므로 1시간 30분쯤 걸린다. 운항 시간 문의는 수영선박(033-241-4833).

**맛있는 집** \_ 차를 몰고 갈 경우에는 오가는 길에 이른바 홍천(양지말) 화로구이를 맛보자. 삼겹살을 고추장에 빨갭게 무쳐 숯불로 구운 맛이 매콤하니 입맛을 돋운다. 양덕원과 홍천 사이 44번 국도변의 하오안리 일원에 많은 집들이 모여 있는데 원조화로구이(033-435-8613, 5331)와 양지말화로구이(033-435-7533)가 유명하다. 춘천에서 배를 타고 오갈 경우에는 유명한 춘천 막국수나 닭갈비를 맛볼 수 있다. 소양댐에서 가까운 막국수집으로는 신북읍 천전3리의 샘밭막국수(033-242-1702)가 괜찮다. 닭갈비집은 춘천의 변화가인 명동 일대에 몰려 있다.

**숙박** \_ 조교리에는 매점을 겸한 조교민박(033-243-7256)이 있는데 토종닭백숙을 비롯해 식사도 낸다.



## 저소득층을 위한 미소금융 A to Z 미소금융으로 활짝 웃고 새롭게 출발하세요!

미소금융은 아름다울 미(美)와 적을 소(少)자를 써서 아름다운 소액대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새롭게 출발하고 싶지만 창업자금이 마련할 길이 없는 서민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거기에 사업컨설팅·창업교육까지 무료로 지원해 준다니 반갑기 그지없는 대출제도이다. 미소금융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파헤쳐 본다.

글·김종석 우리투자증권 마포지점 팀장, <딸기아빠의 편편 재테크> 저자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에게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미소금융 대출이 시행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의 경우 은행대출은 물론 제2금융권 대출도 쉽지 않아 창업자금·운용자금 등의 급전이 필요한 경우 울며 겨자 먹기로 사금융(사채)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살인적인 고금리 때문에 다시금 빈곤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 사업이 바로 '미소금융'이다.

**지원대상 :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적극적인 자활의지를 보여야**

대출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등급이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에서 평가한 신용등급 중 1개 이상의 회사에서 평가한 개인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신용등급확인도 미소금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신용조회를 하기 때문에 신용조회에 따른 신용누적이 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또한 지원대상이 되고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모두 대출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긍정적인 마인드와 적극적인 자활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유리하다.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의 경우 1억3천500만 원, 기타지역의 경우 8,500만 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이 보유 재산의 50%를 넘는 과다 채무자도 대출을 받기 어렵다. 또한 미소금융중앙재단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고 있거나, 개인회생·개인파산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의 종류 : 이자율 4.5%~2%로 저리, 최고 5천만 원까지 가능!**

미소금융은 일반 가계대출성격의 생활자금 대출이 아닌 창업자를 위한 대출



이다. 금리가 낮다는 이유로 대출환승(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은 것)이나 생활자금 용도로 대출 받기 위해 방문했다가 발걸음을 되돌리는 경우도 있다.

대출은 프랜차이즈창업자금대출, 창업임차자금(사업장임차보증금)대출, 운영자금대출, 시설개선자금대출, 무등록사업자대출 등 5가지 종류가 있다.

대출한도는 최고 5천만 원이며 이자율은 대출상품별로 4.5~2%이내에서 결정된다. 대출금 상환은 5년 이내에 해야 하며 대출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1년의 거치기간을 거친 뒤 4년 동안 원리금균등분할상환(원금과 이자를 대출기간 동안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해야 한다.

## ★ 미소금융 방문한 이재오 위원장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2월 서울 을지로3가 우리미소금융재단을 방문해 자활 신용소액 대출자의 고충을 듣고 지원제도를 점검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미소금융재단 담당자를 만나 “미소금융은 은행 입장에서는 상환 여부가 중요하겠지만, 미소금융인 만큼 상환 가능성이 높지 않아도 상황이 급하면 대출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며 서민을 위한 미소금융 본래의 취지를 잘 살피줄 것을 강조했다. 미소금융 상담역들이 정장보다는 편안한 차림으로 고객을 맞아 달라는 주문도 했다. “넥타이를 한 채 창구에 앉아 있으면 대출을 신청하러 온 이들이 위화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위원장도 이날 ‘점퍼’ 차림으로 지점을 찾았다. 이 위원장은 상담창구에 앉아 직접 대출 신청인들로부터 상담을 받기도 했으며, 지점을 방문 우리미소금융재단을 방문한 한 시민의 ‘대출 보증’을 자처하기도 했다. 또한 상담 후 대출 신청을 위해 방문한 이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으며 ‘재기에 성공하라’고 당부하고, 상담역에 대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 절차 : 대출신청에서 받는 데까지 최소 한 달

은행의 대출처럼 신청과 함께 바로 대출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신청자격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자금용도의 적정성, 변제가능성 등 별도의 심사를 통과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대출상품 중 프랜차이즈 창업자금과 창업임차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에 필요한 자금의 절반을 본인이 조달해야 한다. 이처럼 대출상담, 사업컨설팅, 현장 실사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급여명세서(근로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자영업자), 근로사실 확인서(일용직), 재산관련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등이다. 그리고 대출의 종류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홈페이지 참조) 등도 준비해야 한다. 2월 6일 현재 미소금융재단은 전국에 걸쳐 21개 지점에 불과하지만 연말까지 100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 미소금융의 오해와 진실

**대출조건이 엄격하다?**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경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서울시가 운용하는 창업자금대출의 경우에는 8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대출한도가 1500만 원 이하이며, 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아야 한다. 반면 미소금융의 경우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가 필요 없다.

**대출 승인률이 지나치게 낮다?**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담을 신청하는 30~40%가 자활을 위한 창업자금대출이 아닌 환승론이나 생활자금의 대출을 받기 위해 방문한다고 한다. 이처럼 무담보·무신용으로 대출이 됨으로써 재정악화 및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공정한 심사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

## 무늬만 ‘미소’에 주의 하세요!

미소금융이 시행되면서 미소금융을 사칭하는 사기가 또 한번 서민을 울리고 있다. 인터넷에서 미소금융이라는 유사사이트를 개설해 50%에 달하는 고금리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휴대폰SMS를 통해 ‘조건 없이 미소금융 대출을 해준다’는 식의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태연하게 미소금융재단이라고 응대하면서 보증보험료 60만 원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준다고 사기를 치는 사례도 금융감독원에 접수되고 있다.

이처럼 ‘미소캐피탈, 미소펀드, 미소론’ 등의 짝퉁 상품에 유의해야 하며, 이들 업체의 대부분은 미소금융을 사칭한 대부업체나 할부금융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소금융의 경우 대출수수료와 보증보험료 등의 수수료가 없으며, 절대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권유를 하지 않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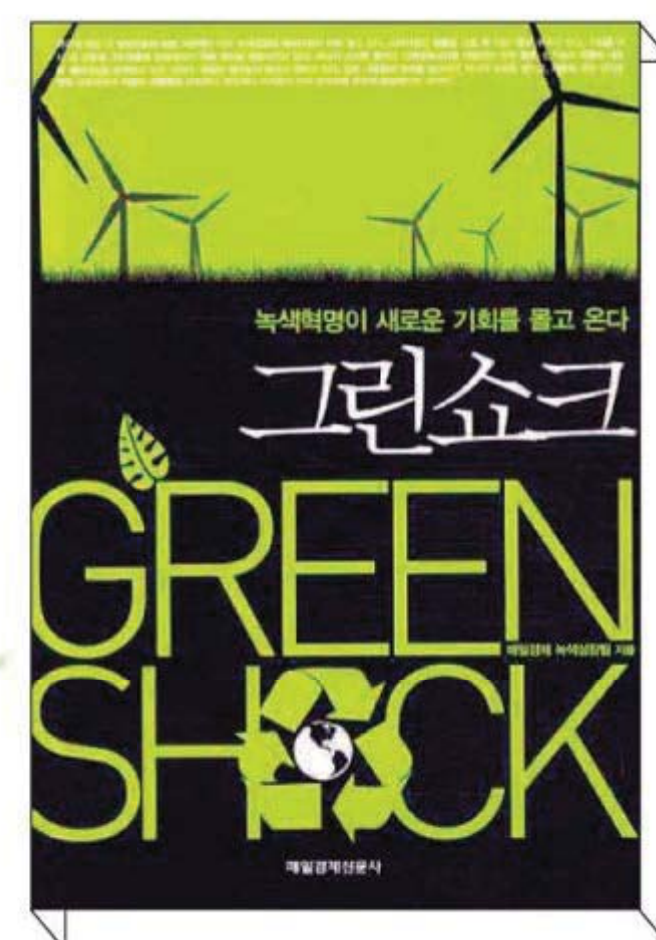
| 서민의 동반자, ‘미소금융’ |                                              |
|-----------------|----------------------------------------------|
| 지원대상            |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저소득·저신용계층                      |
| 대출한도            | 최고 5천만 원                                     |
| 대출종류            | 창업자금, 창업임차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대출 등               |
| 금리              | 최고 4.5%~2%                                   |
| 문의              | www.smilemicrobank.or.kr 미소금융중앙재단(1600-3500) |



# 그린쇼크

과거에도 환경을 중시하지는 주장이 있었지만, ‘환경’과 ‘발전’은 서로 같이 가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했다. 그렇지만 최근 기술발전이 힘입어 이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서서히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녹색산업이야말로 글로벌 경제의 신성장엔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책은 정부나 기업 CEO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국민들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글·민정규 북코스모스 편집장



매일경제 녹색성장팀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펴냄

그린노믹스(Greenomics)는 빠르게 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소비자들은 녹색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있고, 에너지를 절감하거나 거의 소모하지 않기 위한 노력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있는데,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에 평범한 회사원의 생활이 어떻게 상상해보자.

## 2019년 미래 회사원 그리니 씨의 녹색 하루

2019년 12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에 거주하는 마이클 그리니 씨는 오전 7시 알람시계를 끄고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침대 머리맡에 설치된 실시간 전력량계를 확인했다.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시설이 얼마나 돈을 벌어들였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다. 이날 벌어들인 돈은 10달러 20센트. 그리니 씨가 태양광발전 시설로 돈을 벌 수 있는 건 정부가 집에서 생산한 전력을 팔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9년 전인 2010년 시작한 정부의 발전차액지원제도를 고려해 그리니 씨는 과감하게 태양광발전 시설을 지붕에 설치했다.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은 그리니 씨는 오전 8시 30분 차고에 들어선다. 늘 그렇듯 차고 벽면 콘센트에서 차에 연결된 코드의 플러그를 뽑는다. 차에 올라타 배터리 충전량과 충전 비용을 확인해 보니 만족스럽다. 미국 전력시장 운영기관 PJM 분석결과 2,500cc승용차 충전에 드는 전기료는 2달러 50센트밖에 들지 않는다. 이 정도



를 충전하면 3일간은 출퇴근할 때 아무 문제가 없다. 장거리 운행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 배터리기술의 발전으로 수km까지 휘발유 없이도 운행이 가능하다. 퇴근한 후에 차에 딸린 전기코드를 콘센트에 꼽으면 된다. 이 역시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으로 가장 전기요금이 싼 시간대에 자동으로 전기가 연결돼 충전이 되니 편리하고 경제적이기 이를 데 없다.

오전 10시 회사 회계부서에서 연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항목마다 정확히 기재해 달라고 연락이 왔다. 업무상 해외 출장이 많은 그리니 씨는 이 소식에 울상이다. 항공사를 이용할 때마다 따라오는 이산화탄소 때문이다. 연말정산 시 1마일 당 1센트의 탄소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오히려 탄소 덕분에 세금을 덜 내는 것도 있어서 다행이다. 그리니 씨는 월마트에서 쇼핑을 할 때마다 탄소라벨을 확인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적은 제품들만 구입하고 있다. 그 덕분에 매년 연말정산 시에 '에코 포인트' 덕을 톡톡히 본다.

오후 6시 20분 바이어와 저녁 식사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해 회사를 나선다. 자기 차를 몰고 시내로 나가는 사치는 부리지 않기로 했다. 텍사스주의 수도인 오스틴시 도심을 드나들 경우 도심에 한 번 진입할 때마다 내야 하는 25달러 혼잡세에 별도로 주차비까지 포함하면 적지 않은 부담이다. 그래서 그리니 씨는 차량공유 시스템인 '카투고(Car2go)'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했다. 사용 방법도 간단하다.

이미 점심시간에 회사 카투고 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카투고 차량을 예매해 놓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회사 바로 앞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찾아 차에 탔다. 2시간 30분 동안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19.8달러에 불과하다. 유류비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다. 오후 9시 바이어와 저녁을 마치고 그리니 씨는 다시 사무실 근처 공영주차장에 돌아와 차량을 반납한다. 그리고 자신의 차에 올라타 집으로 향한다.

### 녹색금융상품

녹색금융상품은 개인과 기업이 환경 개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예금과 대출 등을 통해 이를 유도하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또한 녹색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취지도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의 녹색금융상품 중 가장 활발하게 판매되는 것은 친환경주택을 대상으로 한 그린 모기지론인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환경친화주택에 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게 가장 보편적인 형태다. 그리고 일본 스미모토미쓰이 은행은 은행을 통해 국공채에 투자하거나 모기지론 대출을 받은 개인 고객에 탄소배출권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탄소배출권은 국내 금융권에선 생각하기 힘든 이색 사은품이다.

녹색클러스터, 녹색관광, 녹색의료, 녹색기술, 녹색펀드... 요즘 녹색 이름표 없이는 마케팅이 안 될 정도다. 그래서 1990년대 후반 IT버블에 이어 '녹색버블'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왜냐하면 녹색산업의 수익성이 뒤따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복 투자도 우려되고 정부지원을 노린 '무늬만 녹색기업'인 곳마저 등장해 물을 흐릴 가능성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녹색산업이 버블 붕괴 우려를 딛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드패리티(Grid Parity, 신재생에너지원에 의해 생산된 전력의 가격이 화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의 가격과 같아지는 수준)'에 대한 정확한 전망이 중요하다.

### 국민의 그린라이프로 승화시켜야

정부와 기업이 아무리 녹색을 외쳐댄다 해도 생활 속에 녹색의 개념이 녹아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전 국민이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어야 하고 생활 속에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녹색에 대한 사고가 깔려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 정부는 이를 위해 녹색생활지표를 개발해 범국가적인 캠페인을 펼쳐나가야 된다. 또 기업의 사회적 마케팅을 지원하고 직장 내 녹색 생활 실천을 확산시키는 녹색직장운동도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탄소포인트 제도 등 녹색생활 실천에 따른 실질적인 인센티브 도입도 고려하고 있고, 2020년까지 이른바 녹색가정을 150만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단체와 녹색소비여성환경단체를 적극 활용하고 이를 전국적 네트워크로 묶어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생활의 녹색화는 주부가 중심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녹색소비활성화 운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친환경상품 구매뿐만 아니라 사용과 폐기까지 고려한 녹색구매제도를 도입하고, 저탄소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상품매장과 재활용매장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그리노믹스의 성공을 위해선 국민과 기업 등 개별 경제주체들의 실제 행동이 필수인데, 가장 빠르고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는 자동차 공회전 금지, 실내 적정온도 18~20도 유지하기, 집 내부 단열 효과 높이기, 엘리베이터 홀짝제 운행, 점심 시간대와 밤 시간대 조명 낮추기, 쓰지 않는 컴퓨터 전원 끄기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가정의 범위를 넘어서면 마을이 되는데, 정부는 녹색마을 조성 운동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세우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녹색 개념을 충실히 심어 주고 미래의 녹색인재를 길러내는 역할도 할 예정이다. 🌱





## 국민권익위원회 '1사1촌' · '1과1결연' 봉사활동 국민권익위원회가 전하는 따뜻한 사랑 이야기

글 · 반지연 권익위 홍보담당관실

**국**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에는 국민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살피고 보듬는 사랑의 전도사가 되었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충남 청양군 장평면 관현리 마을과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은 데 이어 올해부터는 38개 부서별로 사회복지시설과 '1과 1결연'을 맺어 과별로도 다양한 소규모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1사1촌'은 1사(회사)와 1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어 일손 돕기, 농산물직거래, 농촌체험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권익위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1사1촌'을 통해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있다. 권익위는 올해부터 '1사1촌'을 더욱 확대하여 '1과 1결연'을 맺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권익위는 연초 일제히 38개 과(36개과, 2센터)별로 38곳의 사회복지시설이나 무의탁 노인, 장애인 시설들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불우아동 시설과 결연을 맺은 과가 가장 많아 16개과가 결연을 맺었고, 무의탁 노인 시설과 결연을 맺은 과가 6개, 영유아·미혼모 시설과 5개과가 결연해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일부 과에서는 가출청소년 시설이나 노숙인 자활센터, 벽지 농촌과 결연을 맺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를 하고 있다.

또한 1사1촌 결연을 맺은 관현리 마을에서 수확한 고추, 찹쌀, 검정콩 등은 봉사활동을 하는 양로원과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 기증하여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직접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자 하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대해 권익위는 우수 활동 부서에 대해 포상을 하는 등 자매결연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월 9일 서울 종로구 체부동에 있는 중증 지체장애아동보호시설인 '라파엘의 집'에 다녀왔다. 권익위에 들어온 우리 행정인턴들이 부서 배치를 받고 나서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여서 그런지 소풍이라도 가는 것처럼 들뜬 기분으로 출발했다. 그곳은 잘 갖춰진 현대식 시설이라기보다는 평범한 일반 가정집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외양과 달리 내부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다.

나는 큰 방에 모여 있던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난 후 원장님으로부터 시설에 대한 설명과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간식을 먹여주는 것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고맙게도 우리가 서툴게 먹여주는 간식을 아이들은 곧잘 먹어주었고, 비록 말은 못하지만 눈 깜박임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전하는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마음속 보이지 않는 벽들이 하나하나 허물어져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또래의 다른 취업준비생들처럼 취직 준비에만 열을 올려, 취직을 하고 회사의 한 직원으로서 봉사활동에 임했다더라면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의례적이고 강제적인 활동이라는 불편한 마음 때문에 봉사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그 소중한 경험과 마음을 잊지 않도록, 그리고 시간이 부족해 이름과 얼굴을 외우지 못했던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찾아가보려고 한다.

## 〈권익위 인턴들의 봉사리포트〉

# '라파엘의 집'에서 천사를 보다

글 · 이황 행정인턴



박인제 권익위 사무처장은 2월 9일 오후 권익위 행정인턴 10여 명과 함께 종로구 체부동 소재 중증장애아동 시설 '라파엘의 집'(원장 오옥자)을 방문해 지난해 권익위가 자매결연을 맺은 충청도 관현리 마을에서 생산한 찹쌀과 고춧가루(320kg)를 기증하고 위문했다.

## 행복한 떡국 '아현노인복지센터'

글 · 오은아 행정인턴



매달 10군데 이상 불우이웃을 방문해 온 이재오 권익위 위원장이 행정인턴직원들과 함께 2월 12일 서울 마포구 아현 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이 드신 식판을 설거지하고 있다.

지난 2월 12일 서울 아현동에 있는 '아현노인복지센터'에 찾아가 어르신들께 설날맞이 사랑의 떡국도 나누어 드리고 떡과 쌀 등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행정인턴으로 들어와 이재오 위원장님과 처음 대면하는 자리인 만큼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고, 명절 때마다 신문 기사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허례허식에 불과한 봉사활동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조금 있었던 것 같다.

눈 내리는 길을 걸어 도착한 아현노인복지센터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아현동 재개발지구 인근에 있었다. 직접 배식도 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 직접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곳이었다.

직원들과 함께 떡만두국 배식을 마친 후 위원장께서는 직접 설거지를 하셨으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의례적인 봉사활동은 아닌가 잠시 우려했던 것이 기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개수대가 낮아 잔뜩 숙이고 식판을 닦다보니 허리도 아프고 수세미를 쥔 손이 육신거렸지만, 봉사 후 자원봉사자 어머님들의 정성이 담긴 점심식사는 언제 아팠냐는 듯 힘든 것도 잊게 할 만큼 꿀맛이었다.

비록 한 끼 식사 대접이었지만, 명절일수록 더 외로운 어르신들께 좋은 추억을 안겨드리는 일에 동참해 기뻐했다.



# ACRC News



## 국민권익위원회 전북 지역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지난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북 익산, 김제, 진안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민원 상담을 실시했다. 이동신문고는 권익위 전문가들이 민원 현장에 직접 나가 지역민의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국민소통 창구로, 권익위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충북 청원, 음성을 비롯한 총 28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하여 총 1,520여 건의 민원을 상담처리하였다.

이번 익산, 김제, 진안지역 상담에는 이재오 위원장을 비롯한 도로, 교통, 농림·환경, 건축, 재정세무 등 분야별 전문 조사관과 변호사 등이 직접 찾아가 지역 상공민과 농민의 고충을 현장에서 듣고 해결했다.

권익위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올해는 42개 지역으로 이동신문고 운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이재오 위원장, 고위공직자 및 민간기업 대표 특강

지난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재오 위원장이 고위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 임원 및 기업 대표들을 대상으로 청렴을 주제로 한 간담회 등을 실시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기관 및 공기업 고위공직자 및 공기업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특강에서 '세계 속 한국 -반부패·청렴이 국가경쟁력이다'를 주제로 반부패·청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정부와 대한민국의 깨끗한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 회원업체 대표 300여 명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는 '세계 속의 한국-클린경영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이재오 위원장이 실시한 이번 고위공직자, 공공기관 임원 및 민간기업 대표 대상 특강 및 간담회를 통해 반부패·청렴 문화가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까지 널리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신문고 베트남어 민원 창구 개설

지난해 12월 29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통창구인 국민신문고에 베트남어 민원 창구를 개설하고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는 외국인과 함께하는 열린사회를 만들고자하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특히 2009년 10월 21일 한-베트남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상호지원 및 권익보호를 이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민신문고의 베트남어 민원 창구 서비스 개시로 향후 양국 간 자국민의 보호를 위한 긴밀한 권익보호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어 민원 신청 방법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http://www.epeople.go.kr))에 접속하여 베트남 국기를 클릭한 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접수된 민원의 답변은 베트남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서비스가 제공된다.



### 청렴시범학교 합동 보고대회 개최

지난 1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계동소재 청렴교육관에서 2009년 청렴연구시범학교 운영성과를 발표하는 '2009 청렴연구시범학교 합동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청렴연구시범학교는 권익위가 자라나는 학생들이 청렴에 대한 학습을 통해 건전한 청렴가치관을 형성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2008년부터 운영해왔다.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은 양산초등학교(광주), 우수상은 북촌초등학교(제주)와 당리중학교(부산), 장려상은 상남중학교(강원), 부광고등학교(인천), 지영제일고등학교(경남)가 각각 받았다. 권익위는 2009년도 청렴연구시범학교 우수연구성과를 바탕으로 2010년에는 청렴연구시범학교를 36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 편집후기

이번호 <국민권익>도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국민권익>은 독자분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국민권익>을 읽고 난 소감과 바라는 점 등을 엽서를 통해 보내주세요.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 어린 비판을 환영합니다. 엽서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다섯 분을 추첨하여 문 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응모마감 3월 22일)

## Quiz+Quiz

|   |   |   |   |   |
|---|---|---|---|---|
| 1 |   |   | 4 | 5 |
| 2 |   | 3 |   |   |
|   |   |   |   |   |
|   | 7 |   | 6 |   |
| 8 |   |   |   |   |

### 가로

2.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하나. 장윤정은 'OOO의 여왕.'
4.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에게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 OOO금융.
6. 부주의나 태만 따위에서 비롯된 잘못이나 허물. 유익어 과오.
8. 녹색혁명이 새로운 기회를 몰고 온다는 뜻. 'OO쇼크' (참고 44p)

### 세로

1. 권익위 국민신문고 민원 창구에 지난해 12월부터 새로 개설된 언어. OOO어. (뉴스 참고)
3. 속임수 또는 장난을 뜻하는 영어단어.
5.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뜻의 한자성어.
7. 식약청이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마련한 비전. 'OO 식약청' (24p 참고)

### 지난호 퀴즈 정답

## 민원실

- ※ 문제 십자퍼즐을 채운 후 독자엽서에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 게재됩니다.
- ※ 퀴즈에 응모하신 분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고객으로 자동 등록됩니다.

## 독자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 ◎ <세상사는 풍경>에 소개된 '옷 수선 봉사' 기사를 읽으며 가슴가득 감동이 밀려왔어요. 자신의 몸도 불편하지만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로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다니 존경스럽네요. 저도 요즘 아프리카 저체온증 어린이를 돕기 위한 털모자를 뜨고 있는데,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흐뭇합니다. 모두가 힘든 요즘과 같은 시기에 사랑실천이 더욱 아름답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김옥혜(대전광역시 중구)**

- ◎ 우리나라에도 부패예방을 위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와 사회적 인식을 감안할 때, 조직내의 부패를 용기내서 신고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부패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 그 예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의식과 부패 예방에 대한 정책들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홍미나(광주광역시 동구)**

- ◎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무엇보다 웃음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짜증나는 일이나 힘든 일이 있는 민원인들에게 웃음으로 대해주시는 김태균 조사관을 주인공으로 한 '기분 좋은 만남' 기사가 반가웠습니다. 웃는 낮에 침 못 뱉는다는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들이 항상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시길 기원합니다. **황태옥(대구광역시 동구)**

- ◎ 제 주변에 외국에서 온 주부들이 꽤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을 보며 저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친정도 멀리 있고, 말도 잘 통하지 않고, 거기다 냉담한 시선들까지... 특히,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아무래도 언어적·문화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인지 사회 구석구석을 돌아보시며 소외된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 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활동이 더욱 돋보이네요. **장낙희(경상북도 안동시)**

- ◎ 고충처리카페는 만화로 되어 있어 재미있게 볼 수 있고 자녀들도 고충처리 과정을 학습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기 쉽게 그려져 있습니다. 일방적인 주장보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절충점을 찾아 중재하는 좋은 사례입니다. 다음 호에서는 고충처리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정권고' 한 사항을 권고 받은 기관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광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독자소리는 지면 관계상 편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힘  
바깥  
드드리세요!

## 행복의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은 시원하게, 부패행위는 깨끗하게,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은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표지 일러스트 · 함서정

멋진 대한민국,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분의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국민권익>지를 통해 퍼뜨리는 희망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 안에 담긴 희망의 메시지를 널리 퍼뜨려 주세요.

